털썩.

배를 움켜쥔 남자가 천천히 무너져내렸다.

작지만 깊고 치명적인 자상이 그의 복부에 새겨져 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고급스러운 양탄자를 적셨다.

설산을 연상시키는 새하얀 은발과 보랏빛 눈동자.

수려한 외모를 가진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 어째서...?”

멍한 기분으로 그를 바라보던 나는 내 손에서 느껴지는 자그마한 무게감에 정신을 차렸다.

슬쩍 고개를 내려 확인해보니, 단검이다. 아직까지 누군가의 따뜻한 피로 젖어있는 단검.

그리고 내 앞에 쓰러져 있는 은빛 머리카락의 남자.

그 피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채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경련하는 남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며 단검을 내던지며 달려들었다.

땡그랑!

“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볼품없는 소리와 함께 단검이 대리석 바닥에 뒹굴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있는 건지 의아하긴 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당장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대로 근처의 옷가지를 집어 환부를 지혈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사람이 죽어가요!!”

급박한 목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이내 방 안으로 사람 둘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다.

문 앞에서 대기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한 대응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 여기요!”

그들은 이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경악이 그들의 얼굴 위로 번져나갔다.

“주인님이 어쩌다가...!”

그들 중 한 명은 내가 지혈하는 것을 도와주고, 한 명은 급히 사람들을 부르러 뛰쳐나갔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내 십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급히 남자를 데리고 나갔고, 남자는 다행히 그때까지도 숨이 붙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유혈 사태에 쿵덕거리는 심장을 간신히 진정시키던 그때였다.

굳은 표정을 한 어떤 남자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허리춤에는 중세시대에 쓰는 것 같은 검이 걸려 있었다.

“마님, 죄송하지만 조사에 동행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마님이요? 누가요? 나요?

이 사람은 또 무슨 개소린가 싶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문득,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는 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원래의 익숙한 검은 머리카락이 아닌, 화사하고 아름다운 백금발이었다.

“...??”

순간 뇌정지가 온 나는 그대로 굳고 말았다.

그제야 주변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천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 뻗어 있었고, 주변에는 온통 호화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했다.

아늑하고 자그마한 내 자취방이 아닌, 다른 곳이다.

그걸 깨닫고 나니 갑작스럽게 짙은 현실감이 잠식해왔다.

여긴 어디일까.

내가 몽유병이 있던가.

저 사람들은 누구고, 누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지.

납치당한 건 아닐까 싶어 주변을 살폈지만, 소용은 없었다. 대신, 침대 옆에 자리한 거울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홀린 듯 그 앞으로 발을 옮겼다.

남자가 나를 제지하려 했지만, 기어코 뿌리쳐낸 나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

독살스러운 외모를 가진 백금발의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독기가 서려있는 눈매와 진한 화장.

아스라이 핏방울이 튄 얼굴이 그리도 잘 어울릴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해서 슬쩍 손을 들어 올리니, 거울 안의 여자가 똑같이 피에 젖은 손을 들어 올린다.

씩 웃으니, 핏방울이 맺힌 입가가 아련하고도 소름 끼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미처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나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카르마.

씻고 자기 전에 휴대폰을 대충 뒤져보다가 눈에 들어온 삼류 스토리의 로맨스 소설이었다.

당연하다고 해야 할까. 으레 삼류 로맨스 소설이 그렇듯, 세간의 평가가 좋진 않았다.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안 좋아서 그렇지.

[작가 미친 새끼냐?]

[작가가 어떻게 하면 독자를 질식사 시킬지 심사숙고하여 만든 스토리.]

[답답한 내용 때문에 실시간으로 멘탈이 붕괴되면서도 읽을 수밖에 없는 필력.]

그 극도로 부정적인 서평들을 읽고도 반신반의하며 초반 몇 화를 읽은 내가 잘못이었다.

가문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인재인 여주.

악녀에게 하나뿐인 오라비를 잃고, 남주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며 악녀를 물리친다.

뭐 그런, 흔하고 흔한 삼류 로맨스 스토리였다.

‘아니, 스토리가 그따위면 필력이라도 좋질 말든가.’

그런데 스토리가 그따위인데 이상하게도 술술 읽혔다.

스토리가 뭐 이렇게 진부하냐고 욕을 하면서도, 어느새 눈이 시뻘개진 채 다음 화를 누르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구마와 고구마.

가끔 개미 오줌만큼 나오는 사이다에 의지하며 꾸역꾸역 읽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지막 화가 목전.

아직 안 푼 떡밥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넘겼다.

아닐 거라고. 제가 예상하는 것이 틀릴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 화를 남겨두었을 때까지도, 설마설마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화의 페이지가 끝나고. 나는 맨 아래의 문구를 보고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연재 중단]

‘개 같은 거.’

열린 결말과 더불어, 모든 독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결말이었다.

[안 그래도 목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떡밥 안 풀고 연재중단을 해버리는 작가 덕분에 암세포가 암이 걸려 암이 나았습니다.]

결국 다른 독자가 그랬듯, 씨부렁거리며 마지막 화에 장황한 악플과 서평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창밖을 보니 날이 새고 있었다. 밤을 샌 것이다.

그렇게 미칠듯한 피곤함과 심란한 마음가짐으로 새벽 출근길을 나섰다.

그리고 비몽사몽하게 초록빛 신호등을 건너는 내게 달려드는 자동차의 불빛.

그것이 마지막 기억이었다.

어쨌든 그 카르마란 소설이 잘못했다. 피곤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

게다가 이렇게 아리아나 엘리움이라는 미치광이한테 빙의할 일도 없었겠지.

“에휴...”

한숨을 푹 내쉰 나는 흘긋 거울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생전 처음 보는 백금빛 머리칼의 여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도 처음 거울을 봤을 때의 독살스러운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을 그따위로 해서 그렇지.

다 지우고 쌩얼로 바라보니 나름 청초하게 생긴 것 같기도 했다.

물론 지금 상황에 소용은 없었다.

속으로 온갖 욕을 씨부렁거리면서 침대에 앉아있던 참이었다.

문득, 닫혀있는 문 저편의 복도로 누군가 쾅쾅거리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진 몰라도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었다.

뭔가 느낌을 보아하니 나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몰라서 소리가 문가에 가까워질수록,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콰앙!

‘엄마야.’

나는 딸꾹질이 나오려는 걸 애써 참았다.

부서져라 열린 문짝을 뒤로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금빛 머리카락의 중년 남자였다.

눈가에 옅게 잡힌 주름이 웃으면 나름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

흉신악살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게 조금 흠이긴 했지만.

‘끄응...’

나는 그를 알고 있었다.

실리안 셀리온. 내 아버지이자, 셀리온 공작가의 주인. 그를 표현하자면, 한 문장으로 가능했다.

사고뭉치 딸래미에 지친 아버지.

‘그 자체지.’

근신도 시켜봤고, 집에서 내쫓아도 봤지만 뭘 어째.

근신은 시켜봤자 어차피 신경도 안 쓰고 돌아다니고, 집에서 내쫓으면 더 큰 사고를 치는데.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기엔 사고를 엄청나게 친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 화병으로 오래 지나지 않아 급사하는 인물로 언급이 되었던 것 같다.

뚜벅뚜벅 걸음 소리에 나는 생각을 멈추었다.

어느새 다가온 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초리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깐만. 이거 설마.

짜악!

순간 시야가 번쩍이며 고개가 홱 돌아갔다.

입술이 대번에 터지며 선혈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충격에 넋을 놓던 와중, 애써 분노를 억누르는 듯 공작이 끓어오르는 목소리를 내뱉었다.

“정녕 네가 선을 넘는구나.”

얼얼한 뺨의 살갗을 타고 이윽고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다짜고짜 뺨을 맞은 충격 때문이었다.

물론 얼탱이 없이 맞은 게 살짝 억울해서도 있긴 했지만, 일부분에 불과했다.

진짜 일부분이다.

“왜 그랬지?”

공작은 들고 온 단검을 침대 위에 툭 내던졌다.

저 단검의 손잡이에 새겨진 저 불꽃 문양이 셀리온 공작가의 문양이랜다. 아리아는 멍청하게도 그걸로 남편을 죽이려 한 거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찌른 엘리움 후작.

그는 원작의 설정상, 여주의 하나뿐인 오라비였다.

여주가 아리아에게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엘리움 후작의 죽음인 것이다.

나는 주먹을 입에 물고 울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신은 내가 행복한 꼴을 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왜 하필 아리아인 걸까. 왜 악녀인 걸까.

그것도 뭘 해볼 수 있는 시간대로 빙의하지도 않았다.

눈을 뜬 것이 지 남편의 가슴에 단검을 찔러넣은 직후였으니 말 다했지, 뭐.

아니, 이왕 하는 거 칼부림내기 전으로 빙의시켜주지. 왜 하필 가슴에 칼을 찔러넣은 직후냐고.

다짜고짜 아내한테 칼빵맞은 엘리움 후작이란 애는 무슨 죄인데.

“어리광은 받아줄 만큼 받아줬다고 생각한다. 네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지."

"..."

"저택 한 채 값을 넘는 보석을 사도, 드레스 하나를 사기 위해 가보를 훔쳐도 그러려니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작은 나와 동일한 의문을 가진 정상인이라는 것이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상식적이었고, 사리에 맞는 말만을 했다.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조금 사리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다.

이런 짓을 했는데 왜 뺨을 한 대밖에 안 때려.

“하지만 네가 어제 한 것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제국의 귀족을 죽이려 한 것은 반역의 빌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너를 중심으로 셀리온 공작가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몰랐기 때문이다.

다만 여태까지 곰곰이 생각한 결과,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따로 있었다.

아리아가 남주에게 눈이 팔려 남편을 죽인 것은 원작이 시작하기 전의 일이었다.

원작의 시작은 여주가 장례식에서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장면이다.

즉,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는 원작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게 그렇게 사소하게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일이냐고...’

아리아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은 프롤로그에서 서술된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설정 한 줄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과거에 실제로 터졌을 줄이야.

‘너무 쓸데없는 곳에서 개연성이 잘 지켜지잖아.’

주먹을 꼭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던 찰나, 공작 또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가렸다.

참담한 심정을 가다듬는 듯 몇 번 심호흡을 하던 그가 떨리는 숨을 내뱉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거지? 어디까지 가야 만족할 셈이냐?”

“...”

대답이 궁할 때는 침묵이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묵비권이나 행사하고 있자니, 분노로 가득 찬 울림이 다시금 귓가에 흘러들었다.

“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냐는 말이다.”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나는 몸을 움츠렸다. 공작의 눈이 형형한 분노를 담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정말 빡치면 눈에서 불이 난다더니, 진짜인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이해했다.

하나 있는 사고뭉치 딸래미. 그나마 잘 데리고 살 남편감을 찾아서 간신히 결혼을 시켜놨다.

그런디 갑자기 다른 남자와 사귀고 싶다고 남편의 배때지에 칼빵을 놓고 돌아온다고?

나라면 바로 호적에서 팠다.

이를 바득바득 갈며 날 내려다보던 그가 분노로 가득 찬 숨을 내쉬었다.

날 다시금 싸늘하게 내려본 그가 침대에 던진 단검을 회수했다.

아직까지 선혈이 남아있는 듯, 단검이 내던져진 자리에 어렴풋한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인내하는 듯 떨리는 숨을 내뱉은 공작이 단검을 하인에게 건넸다.

그리고, 대신 어떤 서류 한 뭉치를 침대 위에 다시 집어던졌다.

“이 일은 내 손을 떠났다.”

공작이 다시금 눈을 부릅뜨며 날 바라보았다.

나는 애써 그 시선을 피하면서도 슬그머니 서류를 가져가 내용을 살폈다.

한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장황한 소환장이었다.

“네가 직접 가서 머리를 숙이고 돌아오거라.”

나는 머잖아 공작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였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공작을 바라보자, 공작이 이마에 핏줄을 세우며 다시 말했다.

“네가 폐를 끼친 이들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오란 뜻이다. 엘리움 후작은 지금 의식을 잃고 있으니, 디아룬 대공에게 먼저 가야겠지.”

그걸 이해 못 한 것이 아니었다. 아니, 이해했기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디아룬 대공은 카르마의 남주였다.

그것도 여주가 아리아를 단두대의 이슬로 만드는 것에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라고?

딱 봐도 보이는 미래에 심각하게 골몰하던 찰나였다.

공작이 눈썹을 꿈틀거리며 날 빤히 쳐다보았다.

원래의 아리아라면 보통 지금쯤 지랄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의아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에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 아버지.”

공작의 눈초리가 다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라는 말이 맘에 안 드는 것 같았다.

그 무지막지한 기세에 숨도 쉬기 힘들 지경이었지만, 나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용서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입을 다물었다. ‘카르마’ 독자로서의 양심이 강제적으로 행한 일이었다.

나는 아리아가 한 짓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직접 경험했다. 반강제적으로.

그런데도 용서를 입에 담은 것은, 남주와 엮이게 되면 염치고 뭐고 진짜 파국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용서? 정녕 네가 한 짓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느냐?”

“...”

“왜 너는 네 행동을 책임지려 들지 않는 것이냐? 넌 어린 애가 아니다. 언제까지나 가문이 너의 행동을 감싸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

공작은 폭풍처럼 몰아쳤다. 나는 입을 꼭 다문 채 그 원색적인 비난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아리아와는 달리 나는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였기 때문이다.

몇 번만 까딱하면 단두대 엔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닥치는 것 하나가 어려우랴.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자, 공작이 표정을 와락 일그러트리며 눈가를 가렸다.

내 얼굴만 봐도 답답하다는 것 같은 반응이었다.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던 와중, 감정을 가라앉히는 듯 숨을 고른 그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초리로 날 바라보았다.

아주 약간이지만, 왠지 모르게 화를 내는 공작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이전까지 얘한테 얼마나 당했으면 저래...’

아무래도 원작으로 나온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던 모양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하자, 공작은 한 차례 더 나를 노려보고 몸을 일으켰다.

“넌 근신이다. 시중을 들어줄 하녀는 없을 것이다. 식사 외에는 모든 것을 너 혼자 해결하도록. 알겠느냐?”

다시 고개를 끄덕이자 공작은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홱 몸을 돌려 방을 나갔다.

쾅-!

문이 부서져라 닫히고, 잔뜩 화난 발걸음이 복도 저 멀리까지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뱉을 수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미뤄뒀던 고통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공작에게 맞은 뺨이 불이라도 난 것처럼 화끈거렸고, 홱 돌아갔던 고개가 뻐근했다.

“씁...”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도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할 말은 없었다.

아리아는 맞아도 싸기 때문이다.

아무리 변덕이 심하다고 해도 다른 남자 만나겠다고 현 남편을 찔러 죽이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만약 내가 상황을 수습하는 게 조금만 늦었더라면 원작대로 내 남편이라는 자는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세상에, 그렇게 억울한 죽음이 어딨어.

소설 보다가 자동차에 치여죽는 것 다음으로 비참한 죽음이네.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하네.’

이왕 빙의할 거 일을 벌이기 전에 왔더라면 좋았겠지만, 달리 생각했으면 그보다 더 늦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가.

만약 진짜 엘리움 후작이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더욱 나빴을 것이 뻔했다.

난 아마 못 견뎠겠지.

나는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끼며 축 늘어졌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을 얼마나 마주하고 있었을까.

욱씬거리는 통증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거울을 보니, 공작에게 맞았던 뺨이 점점 부어오르고 있었다.

‘얼마나 부은 거지.’

무슨 개구리 볼마냥 퉁퉁 부은 뺨을 살짝 쓰다듬자 욱씬거리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날카로운 따끔거림이 느껴졌다.

거울을 흘긋 살펴보니 부어오른 뺨 사이로 길게 나 있는 한 줄기의 상처가 눈에 띄었다.

경황이 없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공작의 뭉툭한 손톱에 긁힌 모양이었다.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재수가 없네.

살짝 만져보니 피가 배어 나왔다.

원래 숨어 있던 상처도 발견하고 나면 더 신경 쓰이는 법. 나는 침대 옆에 매달려 있는 설렁줄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걸 당겨, 말어.’

이걸 당기면 과연 사람이 올까.

당길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하던 나는 결국 줄을 당길 수밖에 없었다.

홱 돌아간 목도 조금 뻐근한 것이, 뭔가 이대로 내두면 내일 끙끙 앓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줄에 살며시 손을 갖다 대고, 잡아당긴 순간이었다.

바깥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벌컥 문이 열렸다.

‘벌써?’

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가를 향해 시선을 두었다. 하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고용인들이 아니었다.

셀리온 공작이 젊어지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닮은 금발의 남자와 상앗빛 머리카락의 남자였다.

‘뭐야. 누구세요.’

한 명은 나와 같은 붉은빛 눈, 한 명은 연분홍색의 눈이었다. 잠시 생각하던 나는 그들의 정체를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내 오빠들인가.’

페르디난드 셀리온과 노아르테 셀리온. 각각 내 큰 오빠와 작은 오빠이리라.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둘 중 키가 더 큰 남자. 그러니까 페르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이, 아무래도 뭔가 데자뷰 같았다.

‘설마 또 뺨 맞는 건가.’

침을 꿀꺽 삼킨 나는 침착하게 페르를 올려다보았다.

날카롭게 생긴 인상은 아무래도 유전인 듯했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그의 금빛 머리카락은 최근 잠을 잘 자지 못한 듯 푸석푸석했지만, 그 미모만큼은 공작을 그대로 빼어 닮았다.

그야말로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에 감탄할 새는 없었다.

눈썹을 일그러트린 그가 나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내려다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너...”

그의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왕이면 반대쪽 뺨으로!

하는 생각으로 이를 꽉 앙다문 채로 눈을 감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조용했다.

슬그머니 눈을 떠보니 그가 여전한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만 그 경멸 어린 눈빛에 한심함과 답답함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그래도 손찌검은 하지 않을 셈인듯했다.

“...너, 미쳤어?”

순한 외모와는 달리, 냉기가 풀풀 휘날리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할 말이 없네. 아리아라면 미친 게 맞긴 했는데.

말을 차마 잇지 못하고 끊었던 그가 이를 바득 갈았다.

“대체 엘리움 후작을 왜 찌른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냥 찌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억울한 것이, 난 최선을 다했다.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고 있던 짓에 경악하고 곧바로 사람을 불러 구조요청을 했다.

그것마저 안 했더라면 후작은 지금쯤 사경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을 터. 원작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런데 칭찬은 못 받을망정 이렇게 욕이나 얻어먹고 있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해서 광광 날뛰면서도, 겉으로는 침울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입을 열어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는 무슨...”

뭔가를 말하려던 페르는 얼굴을 와락 찡그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가 입을 다물자 소름 돋는 정적이 순식간에 방안을 점령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하지 못하는 거겠지.

온 세상의 근심을 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으로 페르가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었다.

이윽고 정적을 깬 것은, 길게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였다.

“...하아.”

페르는 피곤하다는 듯 손으로 눈가를 감쌌다.

스트레스로 푸석푸석하게 가라앉은 저 금발도 원래는 환하게 빛났으리라.

물론 그 스트레스의 지분 중 팔 할 정도는 아리아가 차지했겠지.

이를 앙다문 그의 입가에서 한이 맺힌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대체 그놈이 뭐라고...”

페르가 말하는 ‘그놈’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을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아델 리하르트 디아룬.

수도에 널리 퍼진 추문의 당사자였고, 악녀인 아리아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자 원작의 남주였다.

수도에서 열리는 모든 사교 모임에서 그녀와 디아룬 대공에 대한 구설수가 나돌았다.

‘인생...’

죄가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 그런데 아리아는 죄가 있는 자도 돌을 던져도 될 정도였다.

나로선 세상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최선이었다.

페르가 오만가지 감정이 다 담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황제에게 직접 작위를 받은 귀족이 네 손에 죽을 뻔했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셀리온이 반역죄를 뒤집어쓸 뻔했다고.”

그래도 원작처럼 엘리움 후작이 죽지는 않았다.

시기적절하게 정신을 차려서 기적적으로 그를 살릴 수 있던 것이다.

만약 원작의 설정대로 그가 내 손에 죽었더라면, 나도 할복했을지도 몰랐다.

세상에 유해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을 없앴으니, 그만큼 마이너스도 사라져야 쌤쌤이 아니겠냐, 뭐 그런 생각으로.

“만약 아버지가 직접 황제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벌써 황실 기사들이 널 끌고 갔을 거야.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이해가 가?”

그나저나 유구무언이란 말이 뭔 뜻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입이 있으면 뭘 해. 말을 못 하겠는데.

입을 다물고 아무런 대답도 않자, 페르가 이를 바득 갈며 말을 이었다.

“네 같잖은 사랑놀음으로 죽을 뻔한 엘리움 후작은 물론이고, 추문의 당사자인 디아룬 대공까지도 피해를 입었어. 네가 그러니까 개차반, 망나니라는 소문이 퍼지는 거야. 아직도 모르겠어!?”

냉정한 사람들 특유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박혀 들었다.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수그렸다.

그 비난이 원작의 아리아를 향하는 것뿐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런 나를 씁쓸함과 분노, 답답함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던 페르는 절절히 토해내듯 중얼거렸다.

“난,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정말로. 진정한 사랑인지 뭔지를 찾겠답시고, 사람을 죽이려 드는 네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진정한 사랑이라.

이게 대체 뭔 쌉소리야. 라고 하기엔 원래의 아리아가 언급했으리라고 나는 확신했다. 왜냐하면, 아리아라면 그럴 만도 했기 때문이다.

그냥 그게 다였다.

입술을 질근 깨문 페르는 더 꼴도 보기 싫다는 듯 차갑게 몸을 돌렸다.

방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조용히 다른 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상앗빛 머리카락과 싸늘하게 빛나는 분홍빛 눈동자.

노아. 내 작은 오라비였다.

그런데 왜일까.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심하게 거북했다.

차라리 페르와 공작을 마주하는 것이 더 편할 듯했다.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였다.

“아주 지랄을 해요.”

정적이 흐르던 방안의 침묵을 깬 것은 나지막하게 들리는 노아의 목소리였다.

아니 근데, 뭐라고?

뜬금없는 폭언 욕설 인격 모독에 나는 고개를 들어 올려 노아를 바라보았다.

방금까지 있었던 침묵이 거짓말이라는 것처럼, 그의 눈동자는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못 하는 거야? 네가 관심받겠답시고 그딴 짓거리를 하면 대공은 참 좋아라, 하겠다. 그렇지?”

페르가 감정에 호소했다면 노아는 그냥 팩트가 섞인 쌍욕을 했다.

그런데 그 쌍욕을 약간만 여과해서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다.

아니. 남편까지 죽이면서 자기를 만나려고 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거란 생각은 못 한 걸까, 안 한 걸까.

아무래도 후자 같았다. 어차피 얼굴에 반했으니 상관없다는 거겠지.

“결국 네 소원대로 디아룬 대공을 만나게는 됐으니 헛짓거리는 아니었네.”

나는 속으로 광광 울며 부정했다.

아냐. 난 싫다고 했어. 진짜야.

하지만 실제로 말을 꺼낼 용기는 없었다.

애초에 공작 앞에서도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말을 못 했는데, 다른 사람 앞이라고 다를까.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날 바라보며 쯧, 혀를 찬 노아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생각 없는 년.”

말을 마친 그가 곧바로 몸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갔다.

방금 있었던 짧고 강렬한 대화에, 볼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생각 없는 년이라. 입으로 중얼거리자 가슴 속 깊은 곳이 찌르르 울렸다.

이것이 바로 마상.

너덜너덜해진 몸과 마음을 가까스로 추스르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한숨을 축 내뱉으니 머리에서 현기증이 돌았다.

공작한테는 물리적으로 처맞고, 그 아들들한테는 정신적으로 처맞고.

이게 대체 뭔 놈의 상팔자냐.

"에휴..."

어차피 이렇게 될 거면 뭘 하러 그리 열심히 살았나 싶었다.

우울증도 고치고 직장도 얻었으니 드디어 남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엔딩이 이따위라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치킨이나 실컷 먹을 걸 그랬다. 돈 아낀답시고 삼시 세끼 컵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와중에도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세 마리에 만오천 원 하는 옛날통닭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침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고 나올걸.’

저녁에 퇴근하고 맥주랑 같이 먹으려다가 결국은 맛도 못 봤다.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이다지도 와닿을 줄이야.

결국 볼가로 또르르 흐르고 마는 닭똥 같은 눈물을 닦던 와중이었다.

달칵-

여태까지 내구성의 한계를 시험당하던 문이 처음으로 조용하게 열렸다.

벌어진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갈색 머리카락의 하녀였다.

눈망울을 굴리며 눈치를 살피던 그 하녀가 자그맣게 목소리를 내었다.

“부르셨나요. 아가씨?”

나는 황급히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설마 본 건 아니겠지.

그러고 보니 페르와 노아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설렁줄을 이미 잡아당겼던 것 같다.

아마 설렁줄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내 방으로 왔는데, 페르와 노아가 방 안에 먼저 들어가서 여태 기다린 거겠지.

여전히 욱씬거리는 뺨을 살짝 매만진 나는,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를 내었다.

“...혹시, 얼음주머니 하나만 가져와줄래?”

내가 생각하기엔 최고로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어조였다.

하지만 역시 어느 사람의 대우는 그의 인망이 결정한다는 것일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오히려 조용하게 말하니 더 소름이 돋았다.

하녀 또한 그 위압을 느낀 듯했다. 잔뜩 위축된 모습으로 허리를 깊이 숙인 하녀가 방을 나갔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침대로 엎어졌다.

머리가 너무 지끈거렸다. 이건 뺨을 맞은 후유증 때문일까. 아니면 팩폭의 여파 때문일까.

‘둘 다겠지.’

그렇게 한동안 혼자서 우울하게 혼잣말로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와중, 나갔던 하녀가 돌아왔다.

헐레벌떡 뛰어갔다 왔는지 숨이 조금 거칠어져 있었다.

“어, 어디에 두면 될까요?”

“이리 줘.”

하녀는 흠칫 떨더니 이내 주춤거리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워하니 오히려 뭐라 말해야 할지 감이 안 잡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고 나서도 여전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얼음주머니와 나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떨떠름하게 바라보던 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얼음주머니를 가져갔다.

아니, 손만 뻗었는데 왜 눈을 질끈 감는 거야.

내가 죽이려 들었나.

하지만 난 속내를 감추고 떨떠름하게 말했다.

“...가봐.”

어차피 여기서 뭘 더 말해봤자 공갈과 위협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럴 바엔 보내는 게 나을 터.

잠시 우물쭈물거리던 하녀는 허락이 떨어지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가버렸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이내 한숨을 내쉬고 얼음주머니를 뺨에 갖다 대었다.

“아야야...”

차가운 감촉과 함께 아릿한 따가움이 밀려왔다. 분명히 뺨에 난 생채기에서 느껴지는 것이리라.

하지만 관둘 수는 없었다.

학창시절에 많이 맞아봐서 아는데, 상처 조금 났다고 이렇게 팅팅 부어오른 뺨을 냅두면 다음 날에 말도 못 할 정도로 붓고 아프다.

조금 쓰라리고 흉 지더라도 안 아픈 게 낫지.

게다가 제 몸 하나 돌볼 시간도 없는 각박한 현대사회에 적응하다 보니 요만한 상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이다.

당장 요만한 상처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부과되는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가 더 무서웠다.

그에 비하면 이런 따가움 따위야.

‘조금 많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신승리를 하며, 한동안 얼음찜질을 했다.

욱씬거리던 뺨도 조금 진정된 것을 느낀 나는 뭉그적거리면서 몸을 일으켰다.

길게 숨을 내뱉으며 머리카락을 이마 너머로 쓸어 넘기자, 여태 잊고 있던 것이 떠올랐다.

‘찝찝해.’

아무래도 어제오늘 하루종일 씻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혹시나 싶어 허리까지 흘러내리는 백금빛 머리카락을 잡아 코로 가져가니 특유의 체향인 것 같은 장미 향이 짙게 풍겼다.

악취는 안 났지만 찝찝한 것은 매한가지였다.

잠시 고민하던 나는 쩝 입맛을 다시며 욕실로 향하기 시작했다.

인간답게 살려면 그래도 씻어야 하지 않겠는가.

‘욕실이 어디지.’

이리저리 방을 돌아다니면서 수상한 문을 열다 보니, 이윽고 욕실같이 생긴 방을 찾을 수 있었다.

의외로 평범하게 생긴 욕실이었다.

그렇다곤 해도 이미 방에 욕실이 기본적으로 딸려 있다는 것부터가 평범하다기엔 뭐 했지만.

욕조처럼 생긴 것 앞에 서서 이것저것을 만지자, 거북이 머리 모양의 석상에서 김이 나는 물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신기하긴 했지만 대중목욕탕에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았다.

벽 한 면 전체를 거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신기하긴 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는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입고 있던 나이트가운을 벗어서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파자마도 어깨끈을 풀지 않고 그냥 통째로 벗어 그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욕조에 발을 담그려던 순간이었다.

“응?”

나는 잠시 멈칫하며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확인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백금빛의 머리카락과 아름다운 붉은 눈동자. 새하얗고 가느다란 팔다리에는 군살 하나 없었다.

그런데 왜일까. 이 위화감은.

나는 더 고개를 숙여 내 몸을 확인했다.

새하얀 피부. 튀어나올 곳은 튀어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간 이상적인 몸매.

하지만 그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따로 있었다.

“...이건.”

바로, 허벅지부터 골반을 가로지르는 길고 커다란 흉터였다.

꼭 칼로 찍어서 비틀어내린 것처럼 기괴하고 흉측했다.

슬쩍 만져보니 흉터 특유의 맨들맨들한 살이 툭 불거져 나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몸 곳곳에 나 있는 흉터가 눈에 들어왔다. 욕조에서 발을 뺀 나는 황급히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몸을 돌려가며 살피니 작지 않은 크기의 흉터들이 수없이 남아있었다.

옷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곳은 특히 심하게 흉이 져 있었다.

넋을 놓은 채 거울을 들여다보던 나는 멍하니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뭔데.”

가벼운 생채기는 약과였고, 불에 지진 것 같은 상처도 있었다.

게다가 등에 뭐야, 이건. 채찍으로 맞으면 이런 흉터가 남으려나.

공작가 딸래미가 대체 어떻게 굴렀길래 몸이 이 지경으로 되는 것인가. 원작에도 이런 언급은 없었는데.

황망한 표정으로 몸을 이리저리 거울에 비쳐가며 살펴보던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원작의 내용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잡아당기며 끙끙거렸을까.

‘아냐. 없어.’

처음엔 내가 기억을 못 하는 건가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원작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나는 의뭉스러운 눈빛으로 내 몸에 나 있는 흉터들을 내려다보았다.

보아하니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간 상처가 겹치고 겹쳐 쌓이면 이렇게 될 터.

꼭 고문이라도 받은 흔적 같지 않은가.

‘누가 이런 거지.’

자해를 했을 리는 없을 테다.

당장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자해를 했다기에는 등 뒤에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흉터가 나 있었기 때문이다.

딱 한 번 읽었던 원작을 생각하며 골똘히 머리를 굴리던 찰나였다.

문득, 뺨이 욱씬거렸다. 왜 그런가 싶어 손을 대봤더니 자연스럽게 상처가 만져졌다.

몸에 나 있는 것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생긴, 비슷한 모양새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이들이 있었다.

‘...설마.’

셀리온 공작. 내 아버지.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하기도 했다.

아리아에게 거리낌없이 해를 가할 수 있고, 또한 은닉할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아리아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적의를 드러낸 이였다.

처음 공작에게 뺨을 맞을 때는 그냥 딸이 엇나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뺨을 때린 것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어린 시절부터 사고뭉치였다는 아리아를 생각해보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매를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행해져 온 가정폭력은 한 아이의 심성을 뒤틀게 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니까.

어쩌면 아리아가 이다지도 개차반이 된 이유는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몰랐다.

‘페르와 노아도 동참했을지도 몰라.’

페르와 노아에게는 공작가의 명예를 더럽히는 아리아가 꽤 눈엣가시일 테니까.

거리 또한 공작 못지않게 아리아와 가까우며, 고용인들에게도 충분히 숨길 수 있었다.

만약 페르와 노아도 거기에 동참했다면...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여긴 내 사지였던 것이다.

‘...도망가야 하나?’

하지만 도망을 가기엔 문이 너무 튼튼해보였다.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

말인즉, 얌전히 방에 박혀서 내게 내려질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떨떠름하게 중얼거렸다.

'맞는 건 지겨워서 싫은데.'

이미 전생에서 엄청 맞으면서 살아온 탓에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맞아야 한다니. 이건 운명인가, 팔자인가.

그나저나 왜 원작에서는 이런 중요하고 흥미로운 설정을 안 푼 거야.

악녀라는 설정을 만들기 위해 엘리움 후작까지 죽여놓고.

설마 연중해서 그런가.

“에후.”

한숨을 푹 내쉬며 상념에서 빠져나온 나는 일단 씻기로 결정했다.

오랜 시간 맨몸으로 있어서 그런지, 으슬으슬 몸이 떨려왔다.

감으로 이것저것 대충 만져보니 물을 토해내던 거북이가 입을 닫았다.

첨벙.

욕조에 몸을 담그니 충족감이 깊게 배인 신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가득 차오른 수증기에 뺨이 조금 따끔거리긴 했지만, 익숙해져서 그런지 견딜만했다.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만약 원작대로 스토리가 흘러간다면 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이블린느 엘리움. 아델 리하르트 디아룬. 아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장 큰 주역들.

물론 원작에서 아리아의 행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긴 했다.

‘도망쳐버려?’

가정폭력과 예정된 죽음에서 벗어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와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아서르 엘리움. 엘리움 후작.

모든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 단언컨대 ‘카르마’에서 가장 불쌍한 인물이었다.

공작가의 사람들이 아리아에게 가정폭력만 가하지 않았어도 아리아는 멀쩡했을 테고, 그가 칼빵을 맞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셀리온 공작가와 엮이지만 않았다면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이다.

왜 결혼을 수락해서 그런 횡액을 맞았는지.

'좋아. 생각해보자.'

생면부지의 사람이 죽빵을 날리고 도망쳐도 눈깔 돌아가서 쫓아갈 텐데, 무려 칠 년을 같이 산 아내에게 칼빵을 맞았다고 쳐보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아내에게는 결혼하기 전부터 내연남이 추가로 딸려 있었다?

결국 그 아내는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강제로 이혼해버린 후 그 내연남과 다시 결혼한단다.

게다가 사교계의 모든 귀족들이 자신을 동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는다면, 그 남편의 심정은 과연 어떠할까.

“...”

잠시 역지사지해본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결정은 늦지 않았다.

‘...도망을 치더라도 사과는 하고 해야겠네.’

그렇게 공작가에서 사흘이 지났다.

내 대우는 여전했다.

“아, 아가씨...”

“...거기 놓고 가.”

와들와들 떨며 어쩔 줄 몰라하던 하녀는 내 말에 식사가 담긴 쟁반을 내려놓고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한시도 방에 있기 싫다는 것 같은 태도였다.

무슨 내가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하아.”

살짝 한숨을 내뱉은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테이블로 향했다.

지난 사흘 동안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대우라 상관은 없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내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경기를 일으키며 도망을 치니 내 심상이 평안할 리가 없었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긴 건가.'

테이블로 가던 도중, 비치는 거울을 흘긋 바라보았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무서운 얼굴은 아닌데.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와 새하얀 피부.

눈매가 조금 매섭게 생기긴 했지만, 그 정도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정도로 봐줄 수도 있었다.

금실로 짠 것 같은 백금빛 머리카락과 핏빛 눈동자는 그야말로 미녀의 표본이었다.

얼굴에 조금만 힘을 주면 울던 아이도 뚝 그치고 그대로 기절할 만큼 험악한 인상이 나와서 문제지만.

‘밥이나 먹자.’

테이블에 앉아 쟁반을 여니 새하얀 빵과 버섯 수프가 있었다.

단출하긴 하지만 근신인 주제에 이게 어디야.

그리고 식사 옆에는 어제 부탁했던 세간지가 놓여 있었다.

그래도 조금은 세상 돌아가는 경향을 알아야 대공가에 가서 수월하게 대처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빵을 수프에 찍어 한 입 먹으며, 나는 세간지를 펼쳐 들었다. 글자는 수월하게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표정은 썩어들어갔다.

“...막장이네.”

사교계의 소문은 이만한 막장이 없었다.

엘리움의 젊은 부인이 디아룬 대공을 사모해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들었다는 소문은 이미 일파만파 퍼졌다.

그리고 예상대로, 양 가에는 엄청난 양의 추문이 따라붙었다.

사실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한 것은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공가가 엘리움 후작가를 집어삼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까지.

아리아가 엘리움 후작과 결혼을 하기 전부터 디아룬 대공과 연인관계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물론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원작에는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았으니 모두 기도 차지 않는 헛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밍밍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짓을 좋아하는 법.

게다가 그럴듯한 정황과 증거가 밑받침되면 그 크기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모든 연회에서 디아룬 대공가와 셀리온 공작가와의 관계를 수군거렸다.

아리아를 욕하고, 엘리움 후작을 동정했다.

어찌 되었든 내게는 안 좋은 일이었다.

'그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원작의 여주가 너무 신경이 쓰였다.

내가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든 이상 원작대로 흘러갈 공산이 컸다.

하지만 또 엘리움 후작이 죽지 않았으니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속 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아.”

짧게 한숨을 내뱉은 그때였다.

벌컥!

어떠한 예고도 없이 문이 확 열렸다.

깜짝 놀라서 빵을 입에 문 채로 문가를 돌아보자, 노아가 팔짱을 끼고 선 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급히 빵을 내려놓았지만, 노아는 이미 나를 벌레 보듯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일말의 예절도 때려치웠네. 왜? 수프도 그냥 접시 들고 들이키지.”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아니, 솔직히 그냥 하얀 빵인데 그걸 왜 손으로 한 점씩 뜯어 먹고 앉아있느냐고. 그냥 베어먹으면 되지.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 내 목숨은 소중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나갈 준비해.”

나는 움찔하며 노아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쫓겨나는 건가. 밥도 다 못 먹었는데.

“어디를?”

“어디긴 어디야? 디아룬 대공가지.”

노아는 뭘 당연한 걸 묻냐는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나는 살짝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언제 출발하는데...?”

“두 시간 후에.”

네?

불가능한 일은 아니긴 했지만, 조금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원작에서 보면, 귀족들이 서로의 가문에 방문하기 전에 이것저것 귀찮은 절차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 기간이 절대 이틀 정도로 끝날 건 아닐 텐데.

게다가 공작에게 맞은 멍이 빠진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지금부터 준비해.”

말을 마친 노아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잠시 넋을 놓은 채 그의 문가를 바라보던 나는 애써 납득하며 몸을 일으켰다.

하긴, 한 나라의 대공이 모욕을 당했으니 흔한 일은 아니었다.

사건 수습을 위해 다들 동분서주하며 노력했을 터.

‘유예기간으로 이틀이면 충분하긴 하지.’

한숨을 내뱉은 나는 뭉그적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아침에 이미 씻었기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다.

대충 옷만 입고 화장만 하면 되리라.

물론 또 씻어서 나쁠 것은 없겠지만, 갑작스런 타임어택이 걸린 지금 그럴 여유는 없었다.

‘그래도 급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축축 늘어지는 발걸음으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세상에 옷을 놓는 방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땐 문화 충격을 먹었었다.

그래도 지금은 꽤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냥 그러려니 했다.

옷을 고르는 것도 딱히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어깨와 등, 허벅지 등을 모두 가려주는 드레스는 꽤 적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노출이 심하다 싶은 건 곧바로 제외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은 것은 물빛 드레스 한 벌과 은은한 분홍색이 감도는 원피스 한 벌.

어디 파티를 가는 것도 아니니 이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다.

물론 내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대충 분홍색 원피스를 집어 드레스룸을 나왔다.

화장대에 앉아서 뭐가 뭔지 몰라 헤맨 것 빼고는 나름 준비도 다 했다.

‘이제 뭐할까.’

애초에 뭐, 옷도 대충 골랐고, 씻는 것도 고양이 세수만 찔끔 했으니 걸린 시간은 대충 화장한 시간밖에 없긴 했다.

시간이 남는 것은 당연했다.

침대 위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보내다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밖에는 노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끙.’

첫날 다짜고짜 쌍욕을 먹었고, 그 이후로도 딱히 좋은 기억은 없었다.

그래도 왠지 밉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미스터리였다.

팔짱을 낀 채 복도의 벽에 기대어 있던 노아는 준비를 다 마친 내 모습을 보고 의아한 눈치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소함으로 위장한 나를 훑어보던 노아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도 생각은 있는 모양이네. 그 귀신같은 화장도 안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물씬 느껴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노아는 내게 싸늘한 시선을 흘긋 던지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걸음이 빨라서 내가 종종걸음으로 뛰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나저나 자각은 못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그간 답답했긴 했던 것 같았다.

구두 너머로 전해져 오는 푹신한 카펫의 느낌까지 신기할 정도니 말 다했지.

방 안의 공기와 밖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기분이었다.

뭔가 축축하고 습한 냄새가 풍기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며 내려가다 보니, 홀에 도착하는 것은 금방이었다.

마지막까지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가자, 머잖아 홀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페르가 눈에 들어왔다.

‘쟤는 왜?’

페르는 조용히 뒤에서 따라오기 시작했다.

노아는 그런 페르를 흘긋 돌아보더니 이내 관심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다.

왠지 모를 긴장감에 숨을 참으며 걷기를 몇 분.

어느새 문가에 도착한 노아는 팔짱을 낀 채 내게 눈짓을 했다.

“배웅은 여기까지야.”

난 문과 노아를 번갈아 바라보며 쭈뼛거렸다. 뭔가 모양새가 가문에서 쫓겨나기라도 하는 모양새이지 않은가.

문득, 폭탄 돌리기 게임이 생각났다.

모두가 손을 닿기도 싫어하고, 받는 즉시 옆 사람에게 넘기려고 안달하며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트리려 노력하는.

살면서 폭탄의 심정을 생각하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다.

게다가 딱히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안 가고 뭐하냐는 듯한 무언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며 문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저택의 문을 나서 깊게 숨을 들이쉬자, 짙은 비 냄새가 폐부를 적셔왔다.

'어두워.'

하늘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껴 있었다.

정원에서 새들이 바쁘게 날아다니며 폭우에 대비하고 있었다. 짙은 물기를 품은 공기가 폐부에 적셔왔다.

금방이라도 장대비가 쏟아져 내릴 듯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졌다.

바람도 거세게 불며 나뭇가지를 뒤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우산을 챙기러 저택으로 들어가긴 싫었다.

왜 돌아왔냐면서 난리 칠 게 뻔한데 뭐하러 가. 그냥 비 조금 맞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정문으로 직행했다.

마차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셀리온 가의 전용마차가 아닌, 일반 마부가 모는 마차였다.

그것만으로도 아리아의 대우가 어떤지 알 수 있었기에 나는 쓴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배웅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마차조차 내주지 않는 신세라니.

아무튼 짐칸에 가방을 싣고, 챙겼던 돈 중 일부를 마부에게 건네었다. 마부가 돈을 세는 동안 나는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응?’

먼 곳에서, 마차 한 대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점차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불안한 예감이 감도는 것을 느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심증만 있는 불안감이었다. 왜 이렇게 손이 떨리는 걸까.

그 이유는 이내 깨달을 수 있었다.

'...잠깐만. 저거.'

조금씩 가까워지는 마차에서, 조금 익숙한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은빛의 용이 새겨져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눈살을 찌푸리며 희미한 기억을 되짚은 것도 잠시.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체를 기억해낼 수 있었다.

‘엘리움 후작가의 문양.’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설마 여주는 아니겠지?

원작에서도 여주가 수도로 올라오는 내용이 있긴 했다.

하지만 그것은 여주가 엘리움 후작의 장례식을 치른 후, 대공에게 제의를 하기 위해서였다.

원작과는 달리 엘리움 후작이 안 죽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끼익!

마차는 거짓말같이 정문의 앞에서 멈춰섰다.

마부가 후다닥 내려 문을 열었다. 이윽고 마차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느 한 부인.

여주의 새하얀 은빛 머리카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짙은 회색빛 머리카락이었다.

‘휴.’

일단 여주가 아니라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그녀의 이마와 눈가에는 주름 한 자락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 특유의 풍요와 기품이 깃들어있었다.

게다가 옷깃에 달린, 선명한 스태프 문양의 브로치. 그것은 그녀가 엘리움 후작가의 소속이라는 걸 알려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니, 잠깐만.’

그녀는 엘리움 후작을 똑 닮은 이목구비를 갖고 있었다. 아니, 엘리움 후작이 그녀를 닮았다 해야 할까.

둘이 놓고 비교해보면, 진짜 누가 봐도 유전적으로 닮은 요소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야말로 모자의 표본.

나는 넋을 놓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어머니야?’

엘리움 후작 대부인.

아들이 해코지를 당한 어머니가, 직접 그 원수를 찾으러 본가에 방문했다.

한동안 넋을 놓고 있던 나는 이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주가 아니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었다.

빠르게 몸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황급히 마차의 뒤에 숨으려던 순간.

“영애.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다급히 몸을 숨기려던 내 뒤로, 기품있는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내 다리가 그대로 석상마냥 굳었다.

내게 말을 건 부인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영애?”

결국, 나는 천천히 삐걱거리며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의아하다는 듯 이쪽을 바라보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젊은 시절의 영롱함을 잃지 않은, 아름다운 주홍빛 눈동자였다.

하지만 그에 신경 쓸 여지는 없었다.

그녀가 사근하게 미소지으며 이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뭐지. 날 못 알아보는 건가.

“엘리움 후작가의 레이첼 엘리움이라 합니다. 수도에 올라온 지 꽤 되어서 길이 조금 헷갈리는군요. 혹시 이곳이 셀리온 가의 저택이 맞는지...”

하지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목소리는 작아지기 시작했다.

침착하고 부드럽던 목소리와 더불어, 기품있는 아름다움이 배어있던 그녀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다.

나는 침을 다시금 꿀꺽 삼켰다.

“...?”

가까이서 내 얼굴을 요모조모 바라보던 레이첼 부인이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무래도 몰라보는 눈초리였다. 분명히 평소 진하게 화장하고 다녔던 탓이겠지.

한때는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아주 살짝이나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진 순간이었다.

레이첼 부인의 시선이 내 머리핀에 고정되었다.

아까 나오면서 아무거나 대충 끼워 넣고 나온 액세서리였다.

그 액세서리엔 셀리온 가를 상징하는 불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

짧은 신음을 흘린 순간이었다.

머리핀에서 시선을 뗀 레이첼 부인이 날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외모에 녹아있던 기품있는 아름다움은, 이내 처참한 악의로 가려지기 시작했다.

“너...!"

부드럽던 빛 눈이 이글이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잡아먹을 듯이 나를 바라보던 그녀가 살벌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역시 여기 있었던 게로구나.”

직감할 수 있었다.

난 여기서 인과응보를 당하리라는 것을.

부인은 나를 씹어먹기라도 할 듯 살벌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키는 분명히 내가 더 컸지만, 왠지 모르게 기에 눌렸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격분한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휙 들어 올렸다.

‘아.’

예전부터 느낀 건데 이 몸은 동체 시력이 엄청 좋은 것 같았다. 공작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뺨을 맞을 때 어떤 각도로, 어떤 궤도로 때릴지 다 예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피할까 말까.'

그래도 그걸 고민하며 결론을 내릴 정도로 시간이 충분치는 않았다.

애매모호하게 반응하던 나는 늦었다는 걸 직감했다.

대신, 손바닥이 뺨에 맞는 타이밍에 맞춰 고개를 홱 돌리는 정도는 가능했다.

짜악!

살과 살이 맞닿는 소리가 찰지게 울려 퍼졌다.

이러면 소리도 찰지고, 때리는 사람도 만족하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상황파악을 못 하고 있던 경비병이 그제야 황급히 달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올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레이첼 부인은 눈을 이글이글 불태우며 날 노려보고 있었다.

“왜? 내 아들처럼 나도 찌를 셈이냐? 그래. 평소 네 행실로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일 테지. 자, 찔러보거라.”

아니.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요.

붓기 가라앉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부어오를 것 같다.

그래도 공작보다는 힘이 약해서 다행이다. 그런데 사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시답잖은 생각만 하고 있었다.

진짠데.

“찔러보라지 않았느냐!!”

거의 악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며 레이첼 부인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다.

본인도 뭔가 소리랑 다르게 손맛이 안 나서 성에 안 찬 모양인지, 또다시 같은 쪽이었다.

아. 두 번 맞으면 아플 것 같은데.

씁, 입맛을 다시며 날아오는 손을 바라보던 찰나였다.

갑작스레 끼어든 다른 손이 내 뺨따구로 날아오는 레이첼 부인의 손목을 붙잡았다.

덥석.

‘으잉?’

나는 내가 생각해도 기괴한 표정을 지으며 레이첼 부인의 손목을 붙잡은 이를 확인했다.

‘페르...?’

그녀의 손을 막은 것은 페르였다. 물론 며칠 전까지 온갖 쌍욕을 다 먹긴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차가운 얼굴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빨갛게 달아오른 내 뺨을 흘끔 확인한 페르가 고개를 돌리며 입을 열었다.

“물러나.”

“...페르 오라버...”

“물러나라고.”

서릿발같은 음성이 내게 빗발쳤다.

레이첼 부인한테 뺨을 맞을 때도 멀쩡했는데 왠지 페르가 화를 내니까 눈물이 찔끔 새어 나왔다.

'어디로 물러나라는 건데...'

마차를 타려 해봐야, 엘리움 후작가의 마차가 어느새 앞을 막고 있어서 출발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나는 털레털레 마차의 뒤편으로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와중에 마차의 반사경으로 페르의 뒷모습이 살짝 비치고 있었다.

그녀와 대치하는데도 전혀 주저함 없이 당당한 모습이었다.

노아는 언제 왔는지 정문에 기대서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비웃음을 흘리더니 이내 관심도 없다는 듯 페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엘리움 가의 대부인께서 이곳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페르는 이쪽을 등지고 서 있어서 어떤 표정인지 잘 안 보였다. 하지만 레이첼 부인의 얼굴은 똑똑히 보였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 아들을 해한 악귀년이 이곳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있기에, 직접 확인하러 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군요.”

질문에 대답하긴 하는데,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는 것이 진짜 심각하게 빡친 모양이었다.

아직까지 잡혀 있는 자신의 손목을 흘금 바라본 그녀가 페르에게 애써 담담히 말을 건넸다.

“문제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페르가 레이첼 부인의 손목을 탁 내던졌다. 그러고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사전에 방문을 요청하지 않고 남의 가문을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움 후작가에서는 어떠한 사절이나 요청도 찾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레이첼 부인은 하, 헛웃음을 흘렸다. 참담한 심정을 추스르듯, 입술을 질근 깨문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지 아십니까? 셀리온 공자.”

살짝 쉰 목소리에서 점차 물기가 젖어 나오고 있었다. 페르는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엘리움 후작령에 있는 본가에서 후작이 칼에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헌데, 만나려 했더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들여 보내주지도 않더군요. 난 그 아이의 어미인데도요.”

나는 내심 침음을 흘렸다.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것을 보면 좀 많이 심각한 것 아닌가.

떨리는 호흡을 애써 가다듬은 레이첼 부인은 손수건으로 거칠게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정작 사교계를 살펴보니,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더군요. 감히 한 제국의 후작을 죽이려 한 죄인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자택에서 편안히 쉬고 있다고.”

이를 간 그녀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페르를 올려다보았다.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

페르는 침묵으로서 대신 답했다. 레이첼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하, 숨을 내뱉었다.

이주일. 그 단어를 되뇌인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한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을 뻔했던 원흉은 지금까지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단 말이지요. 내 아들은 아직도 의식을 잃은 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건 페르도 할 말이 없는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지, 그런 시답잖은 대답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시, 시답잖은 대답이요?"

레이첼 부인은 분노에 가득 찬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 아들은 일찍이 아비를 잃고 어린 나이에 작위에 오른 아이입니다. 영지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할 아이가, 그 어린 나이부터 수도에 상경해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었단 말입니다.”

나는 입에 지퍼를 닫고 가만히 있었다. 일단 내가 아리아인 이상,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었으니.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건 또 처음이네.’

나는 흘러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꿋꿋하게 그녀의 하소연을 들었다.

“그 어렸던 아이가 몰락하려던 후작가를 일으켜 세우고, 최근에야 간신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에게 시선을 고정한 레이첼 부인은 정확히 내가 그들을 살피고 있는 거울을 가리켰다.

화들짝 놀라며 한 발자국 물러났지만, 아무도 이쪽으로 시선을 주지 않았다.

다만 서러움을 토로하는 레이첼 부인에게 집중되어있을 뿐. 그녀의 손가락 끝이 파르르 경련하고 있었다.

“죽을 뻔했습니다. 암살도, 무엇도 아닌 한낱 치정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토록 혼인을 반대했던 개차반 망나니한테요.”

억. 뼈 맞았다.

아니. 근데 나 개차반 망나니 아닌데...

이를 간 그녀가 다시 울부짖듯 소리를 높였다. 허공에 그녀의 한이 맺힌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왜 찾아왔냐 물으셨습니까? 엘리움 후작가의 대부인이 아닌,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 저 망나니년은요? 저 망나니는 제 아들을 죽이려 들어놓고서도 태연하게...!”

“엘리움의 마나는 그 빛을 잃은 것입니까?”

침묵하던 페르가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차갑던 그의 분위기에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엘리움의 마나는 그 빛을 잃은 것입니까?”

침묵하던 페르가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차갑던 그의 분위기에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아직 자세한 전후사정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니요.”

“전후사정!? 셀리온의 개차반이 디아룬 대공에게 눈이 멀어 남편을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수도는 물론 제국의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전후사정을 따져야 하는 겁니까!?”

자식을 잃을 뻔했던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비명이 사방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페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쏘아붙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저택에서 감히 셀리온의 핏줄을 손찌검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상대가 황족이라도 마찬가지죠."

"하...!?"

"더군다나, 정식적인 초청도 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그게 대체 무슨! 그럼 이 상황에 셀리온 공작가에 서신을 넣고 승낙이 오길 기다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움 후작가를 한순간에 무너트릴 뻔한 망나니 년이 여기 있다는 것이 뻔한데!!”

“당연한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망나니 년이라니요?”

페르의 붉은 눈동자가 이글거리며 타올랐다.

그와 반대로, 레이첼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만 갔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셀리온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야말로 차기 공작에 알맞은 말빨이지 않은가.

하지만 감탄하는 동시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페르는 날 싫어하는 것이 아니던가. 왜 저리도 열심히 나를 변호하는지 궁금했다.

뺨을 때리려는 것도 막아주고, 심지어 날 목표로 삼은 시어머니에게 대신 맞서주기까지 하는지.

얼마 전에 내게 보였던 싸늘한 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다.

‘왜 갑자기?’

생각에 잠겨 있던 와중, 할 말을 잃은 레이첼 부인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숨을 흘렸다.

입술을 지근거리며 할 말을 찾던 그녀가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감았다.

심호흡하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그녀의 눈가에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

애써 눈물을 참으려는 듯 눈을 깜빡이던 레이첼 부인은 이내 포기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레이첼 부인의 기세가 갑작스레 잦아들자 정적이 흘렀다.

오로지 물기에 젖은 레이첼 부인의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

나는 심각한 양심통에 몸을 뒤틀었지만, 페르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이윽고 레이첼 부인이 손을 얼굴에서 떼었다.

살짝 메마른 그녀의 입술에서,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나만.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르는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레이첼 부인은 눈가를 가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가문을 장차 이끌어갈 페르디난드 셀리온 소공작이 아닌, 인간성이란 것을 지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며 둘의 대화에 집중했다.

레이첼 부인이 마침내 제 눈가를 가리던 손을 내렸다.

그녀의 주홍빛 눈에 가득 맺힌 눈물에는, 자식이 죽었을 뻔했음에도 편히 말하지 못하는 한과 답답함이 가득 서려 있었다.

“공자께서 그 개차반 년을 이다지도 감싸고 보호하는 것은 그 망나니가 진정으로 소중해서입니까?”

입술을 질근 깨문 그녀가 나머지 말을 이었다.

“...아니면 단지, 셀리온 공작 가의 위신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그 질문에 페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이쪽에서 등을 돌린 채, 조용히 레이첼 부인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떨리는 숨을 들이마신 레이첼 부인이 길게 내뱉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대답해주세요. 공자, 당신은 정말로 그 악녀가 그리도 소중한 것인가요? 이렇게, 셀리온이 여태껏 엘리움 후작가와 맺었던 인연을 모두 파탄내고, 모른 체할 만큼.”

기저에 흐르는 조용한 침묵.

그 침묵에서 이미 대답은 나온 듯했다.

팔짱을 끼고 정문이 기대어 있던 노아는 킥, 웃음을 흘렸다.

내게로 향하는 그의 시선에서 알 수 없는 만족감이 느껴졌다.

꼭, 어린아이가 자신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서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아하.’

영문을 모르던 나는 그의 반응을 보고 나서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페르가 나를 변호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로지 셀리온 공작가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건가.

엘리움 후작 대부인은 그 대답을 원했고 페르는 침묵으로서 답변을 대신했다.

그는 어느 개차반 년이 공작가의 체면을 더 바닥에 떨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일 뿐이었다.

사적인 감정 따위는 한치도 셈에 두지 않은, 순수 백 퍼센트 공무에 해당하는 일인 것이다.

‘그렇구나...’

왠지 마음이 착잡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레이첼 부인은 길고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젖은 눈가를 닦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고한 귀부인의 자태로 다시 돌아간 그녀가 페르를 바라보았다.

“오늘, 이렇게 난동을 피운 것은 무례한 짓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셀리온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더라도 감당할 것을 약속드리지요.”

“...”

“하지만 공자. 이것이 끝이 아닐 겁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망나니 년은 여전히 후작가의 소속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페르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페르를 잠시 바라보던 레이첼 부인은 이내 몸을 돌려 제 마차로 향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황을 살피며 필사적으로 고민했다.

방 안에서 적었던,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들의 목록. 엘리움 후작 대부인은 그 목록의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었다.

‘지금 할까.’

부인에게 사과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아들을 금이야 옥이야 키워놨는데 왠 개차반 년이 배에 칼빵 놓고 튀었다.

심지어 그 칼빵 놓고 튄 년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그랬다는데.

나라면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채 휘어잡고 너죽고 나죽자 식으로 덤벼들었을 터다.

이주가 지나고서 찾아온 거도 나름 많이 참은 거지 뭐.

결국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결심했다.

그리고는 부인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리아?”

“야, 너!‘

뒤에서 페르와 노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해코지라도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거겠지.

내 기척에 놀란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는 듯 단념하고 눈을 감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다.

물론 칼로 찌른다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다.

부인의 앞에 멈춰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날 막으려는 듯, 이쪽으로 다급히 다가오던 페르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죄송합니다.”

범죄자들이 뉴스에서 했던 대국민 사과가 이런 기분일까.

팅, 하고 돌아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도 아주 효과가 없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그 패악질을 부리는 악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줄은 몰랐다는 거겠지.

아까 내가 고개를 숙일 때부터 살짝 당황한 듯, 침묵하던 레이첼 부인이 이내 싸늘하게 목소리를 내었다.

“늦었습니다. 공녀는 이미 선을 넘었고, 엘리움과 셀리온. 양 가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미 상황을 돌이키기는 글렀다는 말입니다.”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거의 말을 끊듯이 빠르게 반박했다.

아리아에게 빙의한 이후로, 역대급으로 빠르게 말을 이은 것 같았다.

레이첼 부인은 그저 입을 닫고 조용히 날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을 터다.

하지만 세월이 빗겨나간 듯 고고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눈에 담겼다.

뭔가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이게 대귀족의 자태인 건가.

잠시 할 말을 고르던 나는 살며시 부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건 그냥, 제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허!”

헛웃음을 흘린 부인이 다시 싸늘하게 날 노려보았다.

"위선 떨지 마세요, 아리아나 셀리온. 내 진심으로 충고하는 겁니다.”

위선.

그 차가운 한 마디가 내 마음에 깊이 박혀왔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짓을 표현하는, 가장 함축적이고도 정확한 단어였으니.

"흥."

레이첼 부인은 할 말을 잃은 나를 흘긋 보더니, 이내 몸을 돌렸다.

마차의 문은 매몰차게 닫혔다.

그녀가 타는 것만을 기다리던 엘리움 후작가의 마차는 이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나는 우두커니 선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차가 흙먼지를 일으켰지만, 한두 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에 파묻혀 점차 사라져 갔다.

빗줄기는 점차 거세지기 시작했다.

쏴아아아-

이슬같이 내려앉던 비는 조금씩 장대같이 변해갔다. 쏴아아- 하는 물줄기 소리가 온 세상을 뒤덮어갔다.

페르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날 변호한 것은 가족애가 아닌, 그저 셀리온의 위상을 시궁창에 처박지 않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래도 끝까지 얼굴을 내비치지 않은 이보다는 나은 것일까.

나도 모르게 공작을 떠올린 나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회색빛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회색으로 짙게 물든 하늘이 꼭 내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집 가고 싶다.’

셀리온 저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연히 디아룬 대공가도 아니었다.

전자레인지와 더불어 자그마한 냉장고를 열면 치킨 세 마리가 고이 모셔져 있는, 내 아늑한 자취방으로 가고 싶었다.

난 왜 여기에 온 것일까. 그것도 이 악녀의 몸으로. 도대체 왜.

겨우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나와 같이 빗줄기를 맞던 위병들이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딱히 움직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비라도 맞아서 머리를 식히지 않으면, 이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내 통닭...’

이제는 못 먹겠지.

짧게 숨을 내뱉은 나는 마차의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마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마차의 문을 닫으려던 찰나.

텅!

마차의 문 사이로, 팔 하나가 쑥 들어왔다.

“야.”

문을 연 것은 노아였다. 그가 잔뜩 젖은 머리카락을 옆으로 쓸어넘기며 날 바라보았다.

성이 잔뜩 일렁이던 연분홍빛 눈동자가, 비에 맞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조금 유순해보였다.

그나저나 갑자기 왜...?

“대공한테 가서, 용서받기 전까진 절대 돌아올 생각 하지 마. 알겠어?”

유순하기는 개뿔. 이 나쁜 놈.

갑자기 서러움이 물밀 듯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아는 내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으르렁거리며 대답을 재촉할 뿐이었다.

“알겠냐고.”

결국 고개를 끄덕이자, 노아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가 밖에서 문을 탕탕, 두드리자 이내 마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흘긋 창가를 내다보았다.

노아는 그렇다 치고, 페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차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그 모습 그대로.

마차는 덜컹이면서도 꾸준히 움직였다.

대공가로 향하기 시작한 지 대략 한 시간은 족히 흘렀음에도, 마차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쏴아아아-

창가로는 투둑이는 빗소리만이 울렸다.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차에 몸을 맡기니, 괜스레 잡생각만 떠올랐다.

흘긋 마차의 창틀을 바라보니 한쪽 뺨이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까 부인에게 맞은 흔적이었다.

그런데도 사납게 느껴지는 천상적 싸움꾼의 외모에 나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방금 있었던 1:17의 대결에서 압승을 거두고 온 여고 양아치처럼 생기지 않았는가.

실상은 일방적으로 처맞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아.”

그나저나 뺨 맞은 것도 그렇고, 내가 또 사고를 친 건가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설마 사과했다고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지.’

엘리움 후작 대부인.

내가 사과를 했을 때, 처음에 페르를 대했듯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다.

그냥 질렸다는 것처럼. 혐오스런 거미나 지네를 보는 것처럼 싸늘하게 바라볼 뿐.

그저 마주보기만 해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었다.

어차피 다음에 봐야 할 거,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남기려 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것 같았다.

물론 내가 가장 먼저 사과를 해야 할 우선순위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엘리움 후작이었다.

그것만큼은 반박할 수 없는 진리였다.

'근데 아직도 의식을 되찾지도 않았다며.'

난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의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병문안을 갈 만큼 수치세포가 퇴화되진 않은 인간이었다.

적어도 얼굴을 마주 볼 만큼은 회복되야지 뭘 하든 말든 하지.

골골대면서 사경을 헤매는데 사과를 하면 그게 뭔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디아룬 대공가로 가고 있는 거긴 한데...

‘왜 이렇게 막막하냐...’

덜컹!

내심 중얼거린 순간, 마차가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마부석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이 열리더니, 잔뜩 지친 마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 왔으니 내리십쇼.”

나는 끙 신음을 흘리면서 몸을 일으켰다. 문을 열자, 아까보다는 그래도 옅어진 빗줄기가 눈에 띄었다.

물론 그래도 맨몸으로 맞기엔 과다한 양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비를 맞아서일까. 아니면 오기 전에 한바탕 있었던 소요 때문일까.

몸에 힘이 없었다.

“아이고야...”

힘겹게 길바닥에 내려선 나는 앞에 자리한 커다란 저택을 바라보았다.

정문에는 디아룬을 상징하는 푸른 늑대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여기인가.’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으레 정문 앞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굳게 닫힌 철창을 괜스레 한 번 흔드니, 철컹-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연하지만 아무래도 힘으론 열리지 않을 듯했다.

‘왜 아무도 안 나와 있지?’

아무리 개차반 망나니라곤 해도 한 가문의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하던 와중, 한 가지 가정이 떠올랐다.

제국에 자자한 개차반 망나니 악녀의 기세를 초장부터 강하게 잡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닐까.

'설마.'

너 따위는 대공가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문을 열어줄 가치도 없다고.

사과를 하고 싶으면 그만큼 성의를 보이라고.

디아룬 대공이 날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줄이야.

아무래도 내 앞날의 신세가 훤히 보이는 듯했다.

“하아...”

하늘에선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다. 옷이 젖어서인지 몸이 떨려왔다.

만약 겉옷마저 없었었더라면 이미 한참 전부터 덜덜 떨었을 터.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용서받기 전까진 절대 돌아올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노아의 차가운 음성을 떠올리니 한숨밖에 안 나왔다.

돌아갈 면목은 없었다. 면목도 없고 깡도 없었다.

배째라 식으로 나왔다간 뒈지게 처맞고 몸에 흉터 한 줄 더 늘어나는 결과밖에 안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랴!

날 살피던 마부는 내가 다시 마차를 탈 기색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고삐를 고쳐쥐며 출발했다.

흙탕물을 튀기며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마차를 보다 보니, 갑자기 서글퍼졌다.

이제 미친 척하고 돌아갈 수도 없었다.

대충 잡아도 마차 타고 한 시간은 달려왔다.

이 비 오는 날 그 거리를 걸어서 돌아가면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길도 모르고.'

한숨을 내뱉은 나는 돌담에 기대어 쪼그려 앉았다.

그래도 벽에 기대앉으니 비를 조금은 덜 맞는 기분이었다.

그러고 있다 보니 내 처량한 신세가 애달팠다.

아무리 아리아가 소문난 개차반에 망나니라지만, 그래도 사과하러 온다는데 적어도 문은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속편한 생각이긴 했다.

대공 또한 헛소문에 속이 많이 썩었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겠지.

‘감내해야지 뭐...’

그렇게 얼마나 비를 맞으며 쪼그리고 앉아있었을까.

빗소리 사이로 뚜벅- 뚜벅- 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왠지 쪽팔려서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다.

빨리 지나가라, 지나가라 하고 있는데 기대와는 달리 구두소리는 점점 이쪽으로 다가왔다.

뚜벅.

그리고 내 앞에서 멈춰섰다.

슬쩍 고개를 들어 보니 새카만 남성용 구두가 보였다.

코앞에서 멈춰선 그 구두를 잠시 내려다보던 나는 슬쩍 고개를 들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의 바지를 지나쳐, 위를 올려다보는데 빗방울이 자꾸 눈에 들어왔다.

혼자서 얼굴을 비비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던 와중,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흘러들었다.

“그대는 누구지?”

나는 엉겁결에 몸을 일으켰다.

오래 쪼그려 앉아있던 탓인지 잠시 휘청거렸지만, 등을 받쳐주는 돌담에 기대어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새카만 우산을 쓴 남자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늘이 흐린 잿빛이어서일까.

칠흑색 머리카락 아래서, 푸른빛 눈동자가 유독 소슬히 빛났다.

신이 내린 조각품이 이러할까.

날카로운 턱선과 콧대, 차갑게 앙다문 입술. 새카만 머리카락.

어딘지 나른한 빛을 풍기는 푸른빛의 눈동자는 정교하게 세공한 유리구슬 같았다.

그야말로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조화로웠다.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보던 와중, 원작의 내용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밤하늘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듯한 흑발. 권태에 잠긴 푸른색 눈동자. 그로부터 풍겨 나오는 신비함은 뭇 여인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설마.’

맹수 앞에 선 먹잇감처럼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올려만 보던 와중이었다.

날 차갑게 내려보던 그에게서, 다시금 느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기에 내 저택 앞에서 그러고 있나.”

내 저택?

그의 푸른빛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내가 봐도 처량하긴 했다.

하지만 나는 입을 벌린 채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아델 리하르트 디아룬. 제국의 유일한 대공이자, 원작의 남주.

그가 내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차를 호록 들이켰다.

온기가 몸속으로 가득 퍼져 잔뜩 식은 몸이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느껴졌다.

양손으로 감싸서 찻잔을 만지작거리니 기분 좋은 따스함이 손끝으로 흘러들어왔다.

김이 솟아나는 찻잔은 꽤 따뜻해서 언 손을 녹이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단맛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각설탕을 향해 손을 뻗을 여유까진 없었다.

방금 차를 마신 것도 간신히 해낸 것이기 때문이었다.

“...”

디아룬 대공가 저택의 응접실.

내 맞은편 의자에는 한 남자가 팔걸이에 턱을 궨 채 이쪽을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아델 리하르트 디아룬.

처음 그를 보았을 때 나는 내심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원작에서의 묘사가 담백하다 느껴지긴 했지만, 이리도 잘생겼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아리아가 한눈에 반할 만해.’

빛을 흡수하는 것같이 시커먼 머리카락과 푸른빛 눈동자.

분위기에서 풍겨 나오는 느른함과 여유로움은 그가 포식자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었다.

시선에서 악의나 혐오 따위가 느껴지진 않았다.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의 무심함, 무감정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반응이 당연했다.

애초에 관계에서부터 절대 호의적인 시선이 올 수가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응접실로 오는 길에 일단 대강의 자초지종은 간신히 설명해둔 상태였다.

원래는 초면인 사람이랑 마주하면 눈도 못 마주치고 어버버거리는 게 내 주특기였는데.

원작의 결말을 아는 사람으로서, 죽고 싶지 않다는 종을 초월한 욕망이 만든 결과일 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냥 원래 몸 주인의 개차반같은 성격이랑 섞이면서 조금 중화된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시련은 사정을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진 않았다.

이 응접실에 들어와서 의자를 권하고 앉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델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느른하고 여유로운 푸른빛 눈동자로 날 응시할 뿐.

비에 흠뻑 젖은 옷은 그대로였기에 뭔가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것 같았다.

응접실을 무겁게 잠식한 압박감도 한몫했다.

하지만 나는 그 압박감에 저항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유일한 온기인 찻잔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꼭 부여잡는 것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만에 대공의 입이 열렸다.

“그래서, 사과를 하러 왔다는 겁니까?”

“...!?”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올리자,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날 바라보는 대공과 눈이 마주쳤다.

나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날 지그시 응시하던 아델이, 말을 이었다.

“일말의 연락조차 없이?”

“...연락을 안 했는지 몰랐어요.”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가라니까 간 거지.

하지만 생각난 대로 말할 수는 없는 법이다. 원래 세상살이는 반이 가식과 위선인 법이니까.

대공이란 직위는 공국의 왕.

그리고 나는 그의 지위를 훼손하려 든, 아니. 이미 훼손시킨 제국의 대표 개망나니.

갑과 을은 명확했고, 내가 취해야 할 태도는 당연했다.

하지만 아델은 뭔가 맘에 들지 않는 눈치였다.

한숨을 내쉰 그가 다시금 말을 이었다.

“공작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나는 다시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날 내몰던 노아가 그리 당당할 리가 없었다.

아델은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다.

쿠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창가로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들어올 때만 해도 빗줄기가 조금 옅어졌었는데, 착각이라는 듯 더욱 거세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대공은 비가 매섭게 두드리는 창가를 흘긋 바라보았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겨우 사과 따위를 시키려 그대를 보냈다고요?”

아무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하기야 겉으로만 보면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었다.

하늘도 어둡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잠시 외출을 나갔다 돌아와 보니 생전 처음 보는 어떤 여자가 흠뻑 젖은 채 제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정체가 제국에 소문이 자자한 악녀란다.

자신에게 눈이 팔려서 전남편까지 칼로 찔러서 죽이려 든 개차반 망나니가, 어떠한 연락도 없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는 사과를 하기 위해 부러 억지로 찾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심정을 서술하시오.

음.

‘스토커잖아...?’

나는 순식간에 얼굴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내 얼굴에 떠오른 홍조를 뭔가 다른 의미로 이해한 것 같았다.

“하.”

짧은 헛웃음을 흘린 아델이 몸을 일으켰다.

느른하고 권태로운 분위기는 자취를 감춘 채였다.

아무 말도 못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와중, 몸을 일으킨 그가 서늘히 날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비가 많이 오니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십시오. 공작가에는 날이 개면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말이 담은 내용 자체는 따뜻했지만, 그와 반대로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듣기 좋은 목소리가 냉기와 싸늘함을 품으니 그보다 시릴 수가 없었다.

나는 잠시 그의 눈치를 보았다.

아무래도 만나는 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떻게 사과라도 좀...

‘...아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주제넘을 것 같기도 했다.

틀림없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여기서 사과하겠다고 땡깡을 피우면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좋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 침묵하자, 방 한쪽에 서 있던 집사에게 다가간 아델이 언질을 남겼다.

“하녀를 붙여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보고하고.”

간단명료한 명령 후 아델은 이내 응접실을 나가버렸다.

어느새 나는 혼자 남았다. 왜 이리 심정이 참담할까.

그러던 와중, 옆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어느새 집사가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시중을 들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방금까지 잘만 열리던 입은 또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한 하녀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밀빛 머리카락의, 나와 비슷한 나이를 가진 듯한 여인이었다.

“데이지입니다. 오늘 하루, 전속하녀로서 공녀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전속하녀는 처음이었다. 셀리온 공작가에서도 안 붙여준 걸 디아룬 대공가에서 붙여줄 줄이야.

뻘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엉거주춤 서 있던 와중이었다.

잠시 날 살펴보던 데이지가 조심스럽게 의향을 물어왔다.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으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안색이 많이 창백하세요.”

나는 그제야 내 몸 상태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안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머리가 묵지근 하게 느껴지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일 일어나면 감기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자그맣게 속삭이며 감사를 표하자 데이지의 얼굴에 이채가 흘렀다.

이윽고, 데이지는 송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말을 높이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일개 하녀에 불과한 몸이니.”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놓는단 말인가.

하지만 데이지는 용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잠시 눈치를 살피던 나는 결국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 그래도 왠지 모를 거부감에 몸이 뒤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확답을 들은 데이지는 안내하듯이 앞장서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복도에 물기가 남는 것이 조금 미안해서 발끝을 들고 걷느라 조금 힘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이윽고 욕실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하자, 데이지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곤 고개를 숙였다.

“준비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어색하게 밖에 서서 멍만 때리고 있자, 지나가는 고용인들이 날 보며 수근거렸다.

뭔 말을 하고 있을지 알만하긴 했다.

원래 몸 주인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하며 멍을 때리다 보니 욕실 문이 다시 열렸다.

손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데이지가 욕실 안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오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다란 크기의 욕조와 하녀들 몇이 보였다.

수십 명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 크기의 욕조였다.

몇 분이나 지났다고 이 큰 욕조를 다 채운 거지. 하면서 신기하게 욕조를 바라보던 와중이었다.

누군가 내 등에 손을 가져다댔다.

그리고는 몇몇 손길이 내 옷을 벗기려 들었다. 그에 나는 기겁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짓이야!?”

내 옷을 벗기려던 것은 다름 아닌 하녀들이었다.

나는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며 하녀들에게서 물러섰다.

옷을 벗기려던 하녀들은 되려 당황한 눈치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잠시 주저하던 하녀들 사이에서 데이지가 나섰다.

“이 아이들은 목욕시중 전담 하녀들이에요. 아마 공녀님을 도와드리려고...”

“필요 없어.”

뭔 놈의 목욕 시중이란 말인가. 전형적인 소시민인 나는 그런 사치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하자, 하녀 한 명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하녀들도 사색이 된 채로 내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뭐야. 왜 저래.

왜 저러나 싶어 잠시 생각해보던 와중이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나서야 나는 하녀들이 왜 저러는지 알 수 있었다.

'어우씨. 귀신이야?'

진짜 사람 하나 죽여버릴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뭔 놈의 인상이 이래.

“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를...”

내 옷에 손을 댔던 하녀가 거의 울먹거리는 지경으로 어쩔 줄 몰라하며 고개를 숙였다.

내심 한숨을 푹 내쉰 나는, 어쩔 줄 몰라하는 하녀를 향해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혼자 씻고 나갈게.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줘.”

“...네.”

급히 욕실을 빠져나가는 하녀들의 뒷모습을 보니 인생이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생에서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 올 때면 굳어버리곤 했다.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부끄럽지 않아도, 막상 다른 사람의 힐난을 들으면 움츠러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견디다 못해 찾아갔던 상담 선생님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있었다.

무골호인. 줏대가 없이 두루뭉술하고 순하여 남의 비위를 다 맞추는 사람.

속된 말로 호구.

그것이 내 천성이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천성이 만들어진 것에는, 새끼 양인 마냥 순했던 내 외모에도 지분이 있을 터였다.

그런데 아리아는 인상 한 번만 써도 상대가 쩔쩔매게 되니 이게 바로 불공평함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내 원래 얼굴이랑 아리아랑 반반 섞어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저도 나가 있을게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불러주세요.”

고개를 끄덕인 나는 데이지가 욕실을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옷을 벗기 시작했다.

비에 푹 젖은 옷이 이내 욕실 바닥으로 떨어지고, 흉터가 가득한 몸이 드러났다.

그래도, 이 흉측한 상처들도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됐는지 처음처럼 낯설고 하지는 않았다.

특이한 문신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첨벙-

“흐으으.”

옷을 벗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몸 안쪽까지 뻗쳤던 냉기가 전부 사그라드는 것 같았다.

절로 입에서 충족감으로 가득 찬 숨이 흘러나왔다.

이러니까 스키장에 목욕탕이 같이 있지.

그렇게 얼마나 잡생각을 하며 욕조 안에서 몸을 녹였을까.

“...아.”

깜빡 잠이 든 것 같았다. 물이 조금 식어 있었고, 오한이 밀려왔다. 왠지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얼른 몸을 일으켰다.

찰박.

발을 욕실 바닥에 내딛자마자 현기증이 몰려왔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그럴 만도 하지.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은 나는 젖은 옷을 다시 입어야 하나 고민했다.

다행히 문을 살짝 열어보자, 가지런히 정리된 새 옷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손만 내밀어 옷을 가져가 살피니 다행히 노출이 별로 없는 디자인이었다.

등에 매달려 있는 지퍼를 올리기 위해 조금 애를 쓰긴 했지만, 어떻게든 잘 입고 욕실을 나왔다.

그러자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데이지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방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드시고 푹 쉬셔요.”

“그래.”

마인드 트레이닝 덕분에 조금은 자연스러워진 하대와 함께, 나는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무겁지. 아까부터 현기증도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조금 전부터 귀가 굉장히 먹먹했다.

삐- 하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뭔 일 생겼나...?’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이었다.

털썩.

갑자기 바닥이 올라왔다. 뭐 어찌할 새도 없이 바닥에 깔린 양탄자와 딥키스를 나눈 나는 멍하니 눈을 돌렸다.

뭐여 이거.

세상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다. 토할 것 같은 구역감을 느끼던 찰나, 앞에서 걸어가던 데이지가 뒤를 돌아보고 황급히 이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상황을 파악할 새도 없이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쓰러졌다고?”

“예, 주인님.”

집사가 송구하다는 듯 살짝 고개를 숙였다.

“잠깐 살펴봤더니, 꽤 높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비를 맞은 것이 원인인 듯합니다.”

서류를 책상에 저편으로 밀어낸 아델은 눈가를 살짝 찡그렸다.

생각해보니 그녀가 비를 맞은 것을 깜빡했다.

당장 옷을 갈아입고 쉬게 하지는 못할망정, 계속 앞에 앉혀두고 압박을 가했으니 쓰러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모두 본인이 자초한 일이었다.

이곳에 온 이유가 사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에서 나온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가문 차원에서 사전에 연락이 오지도 않았다.

게다가 정상적인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사과를 시키러 보내진 않았을 터.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녀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답은 따로 있었다.

자신을 보기 위해 엘리움 후작을 찔러 죽이려 들었다지 않았는가.

분명히 공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과라는 구색 좋은 핑계를 대며 다짜고짜 저택을 뛰쳐나왔겠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책을 강구해 그녀를 맞대응한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찜찜한 걸까.

제 주인의 고민을 알아챈 듯, 집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냥 내치시는 건 어떻습니까? 주인님께 추문 하나 덧씌운 여자를 굳이 돌봐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금 마차를 태워 공작가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저희로서는 충분한 호의입니다.”

아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분명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집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직접 눈앞에서 바라본 아리아나 엘리움은 세간의 소문과는 달랐다.

귀신같이 보일 정도로 진한 화장과 악귀 같은 외모로 유명하다던 공녀는, 실제로 보니 눈매가 살짝 날카로울 뿐인 여인이었다.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곧바로 발작하며 미친 듯이 날뛴다던 성정은 어디 가고, 비에 맞은 처량한 생쥐가 남아있었다.

뺨은 어디서 맞고 온 건지 새빨갛게 부어올라서는.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더니, 꼭 신경을 쓰게 만드는군.”

살짝 한숨을 내뱉은 아델이 푸른색 눈동자를 사늘하게 빛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할 듯싶었다.

그러지 않고선 신경 쓰여서 일이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을 듯하니.

“셀리온 공작가에 연락을 보내고 의원 불러와.”

그리고 잠시 생각하던 아델은 살짝 눈썹을 찌푸리며 냉정하게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신, 그녀가 만약 내 저택에서 패악질을 부리려 하면 곧바로 내쫓아버려. 묵인해줄 필요는 없다고 고용인들 전원에게 전해두도록.”

“예, 주인님.”

나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정신을 되차릴 수 있었다.

코로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숨이 콧구멍과 인중으로 고스란히 느껴졌다.

꼭 불을 뿜는 것 같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다 보니, 기껏 갈아입은 옷도 푹 젖었다.

“끙...”

절로 앓는 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누군가 머리 안에서 발이라도 구르는 것처럼 웅웅 울렸고, 시야가 흔들렸다.

한참 비를 맞았던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데이지가 내 이마에 올려두었던 물수건을 갈았다.

차가운 물수건을 이마에 올리기 전, 살짝 손바닥을 내 이마에 얹은 데이지가 중얼거렸다.

“열이 안 떨어지네요...”

나는 대답도 못 하고 끙끙 앓고 있었다.

침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이 아파 왔고, 창자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평소에 면역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겨우 비 한 번 맞았다고 이렇게 몸살에 걸릴 줄이야.

그것도 여름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온몸에서 느껴지는 한기에 몸을 덜덜 떨자 데이지가 이불 안에 따뜻한 물병을 넣어주었다.

새로운 물병을 품에 끌어안은 나는 조금 식은 물병을 슬금슬금 이불 밖으로 밀어냈다.

데이지는 그 물병을 받아들며 날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은 것 맞으세요?”

“...응.”

가만히 쥐죽은 듯이 살겠다고 다짐한 게 바로 어제였다.

여기서 괜히 더 아픈 티를 내봐야 대공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일 터.

지금의 나는 그런 위치였다.

“...약, 먹었으니까.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온 힘을 다해 말을 잇자 데이지가 할 말이 없다는 듯 침묵했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니, 설마 꾀병이라고 말하고 다니진 않을 테지.

‘그건 그렇고...’

설마 의원까지 불러줄 줄은 몰랐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의 나는 그냥 스토커 짓하다가 감기몸살에 걸린, 그야말로 자업자득의 완벽한 예시인데.

이런 날 생각해서 의원을 보내주는 것을 보니 남주도 어지간한 호인인 것 같았다.

‘흉터를 안 들켜서 다행이지.’

목욕시중을 해주려던 하녀들은 물론, 의원이 맥을 잡겠답시고 내 손목을 잡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흉터들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한 의식이 남아있었던 탓이다.

원래 아리아의 잔재일지도 몰랐다. 그런데 딱히 타인의 간섭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았다.

내 자의적인 결정이라 생각하는 걸 보니 뭔가 조금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물. 한 잔만.”

데이지는 난롯가에 올려두었던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왔다.

힘겹게 몸을 일으킨 나는 따뜻한 물을 조심스레 들이켰다.

으어어. 죽겠다. 사람 살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또 목은 말라서 물은 야금야금 다 마셨다.

그대로 다시 엎어진 나는 따뜻한 물병을 주섬주섬 끌어안고 데이지를 올려다보았다.

“미안.”

“뭐가 말씀이신가요?”

내 입에 들어간 백금빛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빼준 데이지가 어리둥절하게 반문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귀찮게, 해서.”

솔직히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간병을 하라 하면 난 빡쳐서 못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데이지는 그걸 군말 없이 해주고 있으니.

아까 약을 먹을 때, 빈속에 먹으면 안 된다면서 묽은 수프를 호호 불어 먹여줄 때는 눈물까지 날 뻔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게 아플 때 혼자 있는 건데 이렇게 간병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그것도 원작 설정상 사교계의 최대 골칫거리인 나를.

"..."

그런데 데이지는 내 말을 듣고 표정을 이상하게 일그러트렸다.

잠시 할 말을 찾듯 입을 우물거리던 데이지가 이내 살짝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에요, 공녀님.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자고 싶어.”

정신이 멍했다. 아까부터 끙끙 앓았더니 몸에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다.

밀려오는 수마가 점차 이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은 데이지가 어지럽혀진 침대 주변을 정리하며 몸을 일으켰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바로 설렁줄을 당겨주세요.”

그 말에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설렁줄을 잡아당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데이지가 마지막으로 새 물수건을 이마에 얹어주곤 대야를 들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끔뻑끔뻑 바라보던 나는 이내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안 되겠다. 좀 자고 생각해야지.

분명히 창문은 닫혀있던 것 같은데 커튼은 왜 바람에 휘날리는 걸까.

저 남자는 누구지? 왜 내 옆에 서있는 건지...

나는 몽롱한 잠결에도 내가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군가 목덜미를 조이는 듯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옆에는 배에 단검이 꽂혀있는 남자가 서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친 뒤의 설산같이 단아한 은빛 머리카락. 그리고 차가운 보랏빛 눈동자.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여기 온 첫날, 내가 배에 단검을 찔러넣었던 남자다. 엘리움 후작.

‘끙.’

나는 나를 게슴츠레하게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 무섭다.

나는 사람의 몸에서 선혈이 흘러나오는 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사람의 몸에 박혀 있는 단검을 쑥, 하고 빼내는 촉감이 떠올랐다.

내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남자. 그리고 조금씩 경련하며 배를 끌어안는 일련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따로 있었다.

날 올려다보던, 진한 배신감이 섞여 있던 보랏빛 눈동자였다.

그러니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것이겠지.

아니 근데 아직 살아있다면서. 살아있는데 왜 귀신처럼 나와서 이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솔직히 난 할 거 다 했잖아.’

내심 한숨을 내쉬며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 손가락을 움직이려 애를 쓰길 한참.

이윽고 겨우겨우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저리 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자그맣게 내뱉자 엘리움 후작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보니, 커튼 틈새로 밝은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먹구름이 끼어있던 하늘은 맑게 개었고, 창밖에선 새가 청명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이마에 얹어져 있던 물수건이 툭 떨어졌다.

멍하니 주변을 둘러보니, 데이지가 나와 손을 맞잡은 채 옆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손은 왜 잡고 있는 건데.

‘내가 잡은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슬금슬금 손을 빼려 했는데, 안 빠졌다.

양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모양새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던 와중이었다. 데이지가 살짝 비음을 흘리며 뒤척였다.

“으응...”

혹시나 깨울까 싶어 그대로 굳어버렸지만 이미 늦었다.

데이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잠시 상황파악을 하는 듯, 부스스한 초록빛 눈을 깜빡이던 데이지는 이내 나와 눈이 마주쳤다.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자, 데이지가 황급히 나와 맞잡고 있던 손을 떼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 죄송합니다! 계속 호흡이 고르지 못하셔서, 불안한 마음에 계속 지켜본다는 것이 그만...”

그거 가위눌린 거였는데.

호흡이 고르지 못하면 좀 깨워주지.

그렇게 속으로 엉엉 울던 와중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데이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옅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미열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보다 많이 나아지셨네요.”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듯 약 먹고 푹 자니 나은 모양이었다.

가위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어쨌든 나았으면 장땡이지.

“고마워.”

감사함은 제때마다 표현해야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법이다.

그리 말하며 데이지를 바라보자, 그녀는 살짝 놀란 기색을 내비쳤다.

그리고는 이내 불편하다는 듯 눈을 피했다.

왜 저러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거울을 보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간과한 것은, 아침에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전투력 백만을 찍어버리는 아리아의 외모였다.

혹시나 싶어서 살짝 미소를 지어보니 엄청난 살인미소가 거울에 비쳤다.

여기서 살인미소란, 정말 사람을 심장마비로 죽일 수 있는 미소를 뜻했다.

나는 찔끔하며 입꼬리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니까 눈을 피하지.

상황파악의 중요성

여태까지 셀리온 공작가와 엘리움 후작가의 고용인들은 대체 어떻게 나를 마주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사납게 생긴 얼굴을 어떻게 마주 본단 말인가.

시무룩하게 눈꼬리를 늘어트린 나는 슬쩍 이불을 걷어내었다.

어제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은 탓인지,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래도 다행히 걸을 힘은 돌아온 듯하니, 이대로 식당에 가서 뭐라도 달라고 구걸을...

똑똑-

“공녀, 일어났습니까?”

팽팽 돌아가던 행복회로는 문가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그대로 박살났다.

이 낮고 권태로운 목소리. 게다가 날 저렇게 부를 사람이 애초에 이 저택에 몇 없었다.

‘...대공님?’

아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데이지 또한 혼비백산하며 몸을 일으키고는 방 한쪽으로 물러났다.

“들어가겠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고, 완벽한 정복 차림새의 아델이 들어왔다.

방 안에 발을 들인 그는 환경을 확인이라도 하듯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나야 아침부터 잘생긴 얼굴 봐서 기분이 좋긴 했다.

근데 지금 내 모습은 꾀죄죄함 그 자체일 텐데.

'괜찮은 건가.'

하지만 아델은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의자를 발견한 그는 개의치 않고 의자를 침대 앞으로 끌고 갔다.

데이지가 어디선가 급히 방석을 가져와 의자에 얹었다.

“몸은 괜찮습니까?”

“...의원을 보내주신 덕분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던 나는 살며시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다행히 오답은 아니었는지 아델은 의자 위에 앉으며 느른하게 말을 이었다.

“셀리온 공작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더니, 날이 밝으면 준비가 되는 대로 곧장 출발한다더군요.”

...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온 말에 그냥 넘어갈 뻔했다.

아니, 그 사람이 여길 왜 와요?

아침부터 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이 많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혈압도 여기 오면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았다.

“아, 참고로 공자 두 명도 동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쐐기를 박는구나. 현실을 마주한 나는 그대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어떡해. 용서받기 전까지는 돌아오지도 말랬는데.

그런데 용서는커녕, 비 맞고 몸살 걸려서 끙끙대고 있는 걸 보면 노아가 뭐라 반응할지 눈에 훤했다.

오히려 디아룬 대공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 야차로 변해서 날뛰겠지.

그 뒷일을 상상하니 자연스럽게 식은땀이 흘러나왔다.

어쩔 줄 몰라하는 나를 지그시 관찰하던 아델이 눈썹을 까딱였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것이.”

“뭐든 말해보시죠.”

아델은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듯 손에 깍지를 끼며 날 바라보았다.

뭔가 낌새를 보아하니, 이미 대충 짚이는 게 있다는 눈치였다.

“그, 그렇다면...”

말을 잇다 말고 망설이자 계속 말하라는 듯 아델이 살짝 눈썹을 까딱였다.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하면 재수 없어 보였을 텐데 이 사람이 하니까 또 그림이었다.

그 잘생김에 힘입어, 나는 말을 이었다.

“용서, 해주세요...”

아델의 입꼬리가 그대로 굳었다.

그대로 굳어버린 그를 바라보며 나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상대는 무려 공국의 왕, 현존하는 유일한 대공이다.

최대한 고상하게 보일 만한 사죄의 말들을 생각해야 했다.

“셀리온 가문의 공녀로서, 아델 리하르트 디아룬 대공 각하의 고귀한 명성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아직 다 낫지 않은 듯 머리가 웅웅 울린다. 살짝 지끈거리는 두통을 참으며 나는 나머지 말을 이었다.

“부디 제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다는 듯, 아델은 깍지를 풀고 자세를 바로했다.

"사과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사과 받기 전까지는 공작가로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한동안 날 바라보던 그는 이내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오예!

나는 내심 주먹을 불끈 쥐고 환호했다. 이렇게 되면 노아가 와도 할 말이 생겼다.

용서받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래서 용서받을 동안 대공가에 머물렀다는데, 자기가 뭐 할 말이 있겠는가.

내게 잘못이 있다면 작은 오라버니의 말을 충실히 따른 죄밖에 없었다.

그렇게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나를 아까부터 지그시 관찰하던 아델이 이내 입을 열었다.

“뭐, 더 할 말은 없습니까?”

“없는데요.”

그렇게 멀뚱멀뚱 아델을 쳐다보자, 그가 한숨을 살짝 내쉬며 시선을 피했다.

뭐 또 맘에 안 드는 게 있는 건가 싶어 눈치만 보던 와중이었다.

“소문으로 듣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군요.”

나는 아델의 말에 쓴웃음을 흘렸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애초에 다른 사람인데.

하지만 속마음을 그대로 꺼내놓지는 않았다.

사실이야 어쨌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아리아 그 자체였으니까.

굳이 부정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으리라.

“제 처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무슨 말이죠?”

내 자그마한 목소리에 그가 한쪽 눈을 살짝 치켜떴다.

불쾌감이 아닌, 흥미의 표시인 것 같았다.

나는 잠시 아델의 눈을 피하며 속으로 할 말을 골랐다.

사실 할 말은 정해져 있었다. 그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였을 뿐.

“다른 남자의 외모에 미쳐 전 남편을 찔러 죽이려 들었다가 실패했지만,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처벌조차 받지 않은 악녀.”

나는 학창 시절에 날 괴롭히던 일진 여자애의 뒷담을 깐다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나저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더듬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하지만 내 기쁜 마음과는 달리, 방 안에는 침묵이 잦아들었다.

들려오는 것이라곤 창가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뿐.

방 한구석에 서 있던 데이지 또한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잠시 두 사람의 눈치를 보던 나는 한 마디 덧붙였다.

“...그것이, 제 처지지요.”

이렇게 적나라한 대답을 본인 입으로 직접 들을 줄은 몰랐다는 눈초리였다.

묘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던 그가 이내 몸을 일으켰다.

뒤에서 대기하던 데이지를 손짓해 부른 아델은 슬쩍 고개를 이쪽으로 돌렸다.

“공작이 오기 전에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젖은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다간 또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니.”

나는 그제야 축축하게 젖은 옷소매를 느낄 수 있었다.

어제 목욕 후 갈아입은 옷 그대로였다.

갈아입을 틈도 없긴 했지만, 이불 안이 따뜻해서 느끼지도 못한 모양이다.

“염려해주셔서 감사해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아델을 바라보자, 데이지가 움찔했다. 아델의 표정도 살짝 굳는 것이 눈에 보였다.

나는 아차 하며 급히 입꼬리를 끌어내렸다.

이놈의 살인미소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날 바라보던 아델의 입가에 조금씩 미소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의 미소는 나같이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냥,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도 안 들게 하는 미소였다.

아리아가 대공을 스쳐 지나가며 본 것이 저 미소가 아닐까. 그러면 한눈에 반할 만도 하지.

진짜 과장 안 하고 일주일 밤낮 내내 저 얼굴만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았다.

‘...안 돼. 정신차려.’

하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었다.

내겐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아델과 엮이면 결국 원작의 아리아 꼴을 면치 못하리라.

원작에서 읽었던 단두대 엔딩을 떠올리니 순식간에 머리가 차갑게 식었다.

‘난 죽기 싫어.’

흔들리지 않고 표정 관리를 해내자, 아델의 얼굴에 다시금 흥미로운 기색이 떠올랐다.

미소를 지운 채 나를 지그시 바라보던 그는 이내 몸을 일으켰다.

“공작이 오면 고용인들을 통해 전해주겠습니다. 그때까지 푹 쉬세요.”

아델이 이내 방을 나가고, 방 안에는 나와 데이지만이 남았다. 잠시 망설이던 데이지가 내게 말을 걸어왔다.

“먼저 씻으시겠어요? 아니면 식사부터...”

“식사.”

단언컨대 장담할 수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 중 가장 단호한 대답이었다.

역시 사람은 밥심이지.

대공이고 뭐고 배고파 죽겠네.

톡- 톡-

규칙적인 박자의 자그마한 소리가 집무실에 울렸다.

아델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앞에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셀리온 공작이 머잖아 저택에 방문하기로 되어있다.

다른 귀족도 아니고, 무려 셀리온 공작이 직접 오니 자신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제공해야 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였다. 그런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흐음.”

옅은 비음을 흘린 그는 방금 아리아와 있었던 일을 회상했다.

분명히 자신을 보기 위해 저택에서 몰래 도망쳐 나온 줄 알았다.

셀리온 공작가에서 돌아온 답신도 그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공녀가 왜 거기 있냐는 듯한 당혹감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아델은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정확히는, 생각했었다.

“악녀라.”

그녀가 했던 말이었다. 그것도 자신을 향해 직접, 자조하듯이.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적어도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심지어 얼마 전엔 자신에게 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엘리움 후작을 찔러 죽이려 들지 않았는가.

생각이 정상적으로 박힌 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공녀의 악명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그럴 만했다.

개차반. 망나니. 사고뭉치. 악녀. 셀리온의 수치. 그것이 그녀의 수식어였으니.

하지만 그 생각은, 방금 그녀를 만난 이후 온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다른 남자의 외모에 미쳐 전 남편을 찔러 죽이려 들었다가 실패했지만, 가문의 후광에 힘입어 처벌조차 받지 않은 악녀.]

아델은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표정을 떠올렸다.

어딘지 모르게 허망하게 보이는 웃음이었다.

다 포기한 듯 보였다. 조금은 자조가 섞여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것이, 제 처지지요.]

부정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아니,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다. 순순히 인정하며 받아들였다.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하고 조곤조곤한 태도였다.

어느 모로 봐도 생각 없는 개차반이 할 법한 행동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본인의 입으로도 말했다시피 그녀는 자신에게 반해서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그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정말 나한테 반한 것이 맞을까.’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는 사실이라 해도, 그 동기까지 맞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델은 자신의 외모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갖는지 잘 알고 있었다.

웬만한 여인들은 그저 보기만 해도 홀리고, 꽤 피곤한 일들을 자아낸다는 것을.

엘리움 후작이 죽을 뻔했다는 소문을 듣고 공녀도 그런 여자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절대 아니야.’

그것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아델은 제 미소를 마주하고도 담담하던 그녀의 표정을 떠올렸다.

제게 반해서 남편을 죽이려 들었다고 했으면서.

그러면서 막상 자신을 마주할 때는 한없이 이성적이고 고요하다.

말과 행동이 한없이 다르지 않은가.

만약 그녀의 말대로라면 방금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다. 절대로 제게 미쳐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소문이 그렇게 퍼진 이유가.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들었던, 진짜 이유가.

‘...그러고 보니.’

아델은 문득 어제 공녀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어제 그녀의 얼굴에 떠올라있던 홍조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몸살기운이었던 듯했다.

집무실을 나가자마자 쓰러졌다고 했으니.

그런데 자신은 되려 엉뚱한 착각을 한 채 그녀를 압박하지 않았는가.

아델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부끄러움에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가렸다.

것이 왕자병과 다를게 뭐냐고, 자책하면서.

똑똑-

“실례하겠습니다.”

갑작스레 생긴 흑역사를 곱씹던 와중, 노크 소리와 함께 조심스럽게 달칵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밖에 찾아온 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밀빛 머리카락과 초록 눈동자의 하녀, 데이지였다.

데이지는 조금 주눅 든 모습으로 집무실에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정하기 위해 깊게 숨을 내뱉은 아델이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이건 이거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앞에서만 한 연기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녀를 하루동안 모신 하녀를 부른 것은,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어땠지?”

아무런 설명도, 무엇도 없는 질문이었지만 그 말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간에 퍼진 악명대로의 행동을 어제오늘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것을 어렵잖게 알아챈 데이지는 잠시 기억을 되짚었다.

하지만 의외로, 대답은 쉽게 나왔다.

“대공 각하께서 걱정하시던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없었나? 협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정말 굳이 꼽으라면, 어제 욕실에서 잠깐의 소요가 있었습니다만, 소문에 필적할 만큼의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욕실이라.

아델은 눈을 빛내며 자세를 바로했다.

“상세히 설명해.”

데이지는 어제 욕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자세히 설명했다곤 해도, 딱히 별것도 없었다.

목욕시중 전담하녀가 아리아의 탈의를 도와주기 위해 몸에 손을 대었다가 매서운 눈길을 받은 것.

그게 끝이었기 때문이다.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아델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턱을 궤었다.

“허락없이 몸에 손을 댔으니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공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했을 터.”

“맞습니다.”

데이지가 지당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델은 조금 묘한 기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신의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 하녀는 공녀를 두둔하는 듯했다. 왜 그러는 걸까.

하지만 아델은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 하녀는 따로 조금 교육을 하는 것이 낫겠군.”

집사를 흘긋 바라보자,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메모했다.

별 소득을 얻지 못한 아델은 혀를 차며 몸을 기대었다.

하룻밤 그녀를 모신 하녀의 이야기는 뭔가 다를까 싶었는데, 딱히 다를 건 없었다.

“이만 돌아가. 공녀가 셀리온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 붙어 있도록.”

“네.”

이윽고 데이지가 방을 나가고, 아델은 상념에 잠겼다.

사실 이런다고 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없긴 했다.

소문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조금 흥미롭긴 하지만, 그뿐이었다.

공녀는 자신이 퍼트리게 된 추문에 대해 직접 공작가에 찾아와 사과했다.

비록 그 속내는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직접 찾아와 사과한 이상 추문은 묻어두는 것이 예의다.

더 신경 쓸 필요는 없었다. 이 일은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자신은 어차피 영지만 신경 쓰면 되고, 딱히 세간의 소문에 흔들리는 편도 아니었으니.

게다가 현재 수도에서 진행하는 일에 딱히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대로 셀리온 가문의 사람들에게 그녀의 신병을 인계해주면 ,그녀와의 인연은 끝이리라.

어차피 이번 일만 처리하고 난다면, 두어 달 사이에 자신은 다시 대공령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

하지만.

“...그 눈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군.”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집사가 정중히 그의 의중을 헤아리려 들었지만 아델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공녀님.”

문 안으로 고개를 빼꼼 내민 데이지가 내 생사를 확인하고는 종종걸음으로 다가왔다.

“식사는 다 하셨나요?”

“응...”

나는 흰죽이 담겨 있었던 그릇을 시무룩하게 밀어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식사였다.

빈속에 기름진 음식을 집어넣으면 배탈이 날 거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긴 했다.

'그런데 그렇다고 흰죽을 줄 줄은 몰랐지.'

물론 시장이 반찬이라고, 거의 흡입하긴 했다.

마침 데이지도 어디 볼일을 보기 위해 갔다가 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릇 채 붙잡고 후루룩 들이켰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바닥이 드러나 있었다.

거의 하루 만에 먹은 첫 식사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말았다.

“이제 어떡하시겠어요?”

“씻을래.”

배가 여전히 조금 고프긴 했지만, 하루를 종일 굶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여기서 더 먹으면 분명히 체하거나 탈나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이따가 눈치 보이지만 공작가로 돌아가서 빵이라도 찾아 먹자는 생각을 하며, 욕실로 향했다.

미리 갈아입을 옷도 팔과 어깨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부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욕실에 들어오기 전, 하녀들을 미리 뒤로 물린 데이지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눈빛으로 내 의중을 물어왔다.

“목욕시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그리 대답하자, 데이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어제 쌀쌀맞은 반응을 기억하는 듯했다.

데이지가 옷과 수건을 한쪽에 고이 내려두는 것을 확인한 나는 옷을 벗기 위해 손을 등 뒤로 가져갔다.

“...끙.”

하지만 땀에 젖은 옷은 등에 달린 지퍼를 잡아당겨도 잘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옷깃에 끼인 것 같았다.

이리저리 한참을 낑낑거렸지만 풀리지 않았다.

게다가 기괴한 자세를 너무 오래 유지한 탓인지 쥐가 나고 말았다.

‘아오.’

그렇게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잠시 숨을 돌리던 와중이었다. 날 안쓰럽게 쳐다보던 데이지가 한 발짝 나섰다.

“도와드릴까요?”

와중에도 낑낑거리며 지퍼를 열기 위해 노력하던 나는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숨을 몰아쉬며 고민하던 나는 한숨을 내뱉었다.

어차피 이제 곧 있으면 공작에게 뒷덜미 잡혀서 공작가로 돌아갈 터였다.

그렇게 되면 다시 볼일도 없을 테니 딱히 상관은 없겠지.

격렬하게 드는 거부감은 애써 무시했다. 살짝 고개를 돌린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해.”

살그머니 다가온 데이지가 조심스럽게 지퍼에 손을 갖다 대었다.

옷깃에 끼였던 것인지, 절대 안 열리던 지퍼는 데이지의 손에 닿자마자 부드럽게 풀려 내려갔다.

자연스럽게 데이지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내, 내 등이 온전히 데이지에게 드러난 순간.

“...!?”

급하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탈의를 도와주던 손이 스르르 떨어져 나가고,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옷을 다 벗지 않은 채 슬그머니 뒤돌아서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데이지는 손으로 입가를 가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록빛 눈동자에는 짙은 당혹감과 경악이 배여 있었다.

“이제 됐어.”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낀 나는 고개를 숙이며 황급히 데이지를 문밖으로 떠밀었다.

떠밀었다기엔 미약한 손길이긴 했지만, 데이지는 그 약한 힘에도 순순히 문밖으로 밀려나 주었다.

찰칵!

데이지를 몰아내고 문을 잠그자 그제야 평안이 몰려왔다.

내심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어으 추워.’

그 와중에도 땀에 젖은 옷에서 묻어나오는 물기에 오한이 들었다.

어제의 참사를 기억해낸 나는 황급히 옷을 벗고 욕조로 향했다.

첨벙!

조심스럽게 욕조에 몸을 담그자 기분 좋은 오싹함이 온몸을 적셔왔다.

몸에 조금 남아있던 몸살기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어제도 이러다가 쓰러졌으니, 이번엔 오래 있지 않고 대충 몸만 적시고 나올 예정이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감성을 살려 최대한 신속하게 씻은 후, 옷을 입고 욕실을 나왔다.

그러자 아직까지 멍한 눈초리로 서 있는 데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데이지?”

“네, 네...!?”

왠지 모르게 화들짝 놀란 데이지가 황급히 내게 다가와서 젖은 옷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며 내 눈을 피하는 것이, 뭔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 같았다.

애써 시선을 피하는 데이지를 톡톡 건드려 날 보게 했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 하나를 입에 갖다 대었다.

부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런데 그러자 갑자기 데이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도록 굴러떨어졌다.

나는 당연히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왜, 왜 그래...?”

하지만 내 목소리가 기폭제가 된 듯했다. 결국 얼굴을 감싼 데이지가 몸을 뒤로 돌렸다.

조금씩 등을 떠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울고 있는 모양이었다.

‘뭐야. 갑자기 왜 울어.’

내가 혼란에 빠져 어쩔 줄 몰라할 수밖에 없었다.

방 안에는 데이지가 조금씩 훌쩍이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넋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는 여자는 건드리는 거 아니랬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발만 동동거리면서 얼마나 흘렀을까.

가까스로 진정한 듯, 데이지가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뒤로 돌았다.

눈가가 발개져 있었다.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뭔가를 결의하듯, 데이지가 굳세게 입술을 깨물며 날 바라보았다.

“입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입에 칼이 들어오면 이야기해도 돼. 뭐 중요한 정보라고.

하지만 그렇게 딴지를 걸기엔 너무나도 결의에 차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 어쨌든 비밀을 지켜준다는데 일단 고마워해야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것으로 준비는 다 했다.

화장은 까짓거 뭐 그냥 대충 하면 되고. 드레스도 그냥 위에 대충 아무거나 하나 껴입으면 되고.

이제 공작과 페르와 노아가 오기 전에 어떻게 변명할지 머릿속으로 고민이나 하고 있어야지.

데이지는 처음에 공녀의 시중을 들 하녀로 자신이 지목되었을 때 한숨을 내쉬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공녀에 대한 악명은 일개 고용인조차도 알 정도로 퍼져 있었으니.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귀족이라곤 해도 이미 오래전에 몰락한 신세다. 집사장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같은 것은 없었다. 존중은 받더라도, 오로지 그뿐.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공녀의 시중을 들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신이었다. 저라면 크게 다칠 일도 없을 테니.

그러니 설령 공녀가 부리는 패악의 희생양이 된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어차피 조금 아프기만 할 뿐, 큰 상처는 남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별일은 없었다.

욕실에서 있었던 소요야 먼저 하녀가 잘못한 것이다. 그 외에는 행패는커녕, 큰소리조차 친 적이 없었다.

물론 조금 의아하긴 했다. 패악으로 위명이 높은 악녀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상관은 없었다. 어차피 길어도 이틀 내에는 셀리온 가로 돌아갈 사람이다.

이유야 어쨌든, 얌전히 있어 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은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다.

처음 이상한 것을 느꼈을 때는, 뜬금없이 사과를 받았을 때였다.

공작가의 핏줄과 일개 고용인의 신분 차이는 엄청났다. 게다가 형식이야 어쨌든 지금 그녀는 대공가에 찾아온 손님이었다.

손님을 시중드는 것은 대공가에 소속된 고용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기에,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진짜 머리가 잘못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고.

결국, 마음에 걸려서 자다가 말고 밤중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

공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경련을 하고 있었다.

다급히 이마를 짚었지만 열은 많이 내린 상태였다.

단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란 것을 알아챈 것은, 그녀가 몸을 떨며 뭔가를 중얼거렸을 때였다.

문득 피어난 호기심에 귓가를 가까이했을 때 들려온 말은 이러했다.

미안해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어.

살려주세요.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희미하게 눈물까지 맺혀있었다.

막상 그때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잠꼬대가 조금 심한 편이구나, 했을 뿐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주인에게도 그렇게 보고했다.

딱히 걱정할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욕실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소요를 제외하면, 아무런 사건도 없었다고.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위축되어있는 모습을 보여 의아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지만 지금 순간, 데이지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소심한 사람처럼 굴었는지.

왜 자신의 몸에 손을 댔을 때 그리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세상에 다시 없을 개차반 망나니라 불리던 그녀의 등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부서진 유리가 박힌 채찍으로 맞으면 그렇게 될까.

달군 불판으로 지지면 그렇게 될까.

데이지는 하염없이 아리아를 바라만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다.

“...이제 됐어.”

자신의 시선을 불편하다는 듯 피하던 그녀는, 보여선 안 될 치부를 보인 사람처럼 급히 자신을 떠밀었다.

힘없는 미약한 손길이었지만 하릴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반응할 수 없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넋을 놓은 채 서 있는 것 뿐이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달칵-

눈치를 보듯이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의 공녀가 욕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안색이 창백했던 어제와 달리, 뺨에는 붉은 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매는 촉촉하게 젖어서인지 조금은 순하게 보이기도 했다. 여전히 매섭기는 했지만.

하지만 왜일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같았다.

“데이지?”

“네, 네...!?”

아차.

데이지는 그제야 자신이 하녀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황급히 옷을 받아든 데이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왠지 지금은 그녀를 마주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리고 새하얀 손이, 고개를 숙인 데이지의 시야로 조심스럽게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는 그녀의 팔뚝을 톡톡- 건드렸다.

“...”

부드럽고도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데이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마주친 것은 차분하게 가라앉은 붉은 눈동자.

눈매가 날카롭다는 사실은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럴 정도로, 부드럽고 순한 성격을 가진 이들 특유의 눈빛이 그 붉은 눈에 깃들어있었다.

왜 보지 못했을까.

날카롭게 생긴 인상과 사나운 눈매에 가려졌다고는 해도.

어째서 여태까지 저 부드럽고 잔잔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보지 못한 걸까.

데이지를 고요히 바라보던 아리아는, 이내 새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 하나를 조용히 제 입에 갖다 대었다.

쉿-

그 작고 가냘픈 손짓에 눈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지 말아달라는지 알 것 같았기에.

결국 데이지는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겨우 소문 따위에 휘둘린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먼저 색안경을 끼고 그녀를 바라보았던 것이 후회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상할 수 없었다. 아니, 해서는 안 됐다.

어떤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잣대로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입술을 꾹 깨문 데이지는 살짝 눈물이 어린 눈으로 아리아를 바라보았다.

“입에 칼이 들어와도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

나는 힘없이 대답하며 몸을 일으켰다. 데이지가 조심스러운 기색으로 날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 가벼운 차림으로 가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팔을 살짝 들어 올리며 내가 입은 옷을 살폈다.

목까지 깔끔하게 가리는 터틀넥 형태의 드레스였다.

조금 수수하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었다.

너무 화려한 옷을 가져가면 다음에 택배로 보내줄 때 파손 위험도 있고.

아, 여긴 택배가 없구나.

“여기 의원이 만들어준 약이에요. 돌아가셔도 꼭꼭 챙겨 드셔요.”

데이지는 내 손에 약봉지를 쥐여주며 당부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데이지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봤다고, 그래도 정이 들기는 든 모양이었다.

헤어질 때가 되니 이리도 아쉬울 수가 있다니.

비록 그것이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데이지는 이곳에 와서 내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아플 때 옆에 있어 주었다.

세상에서 혼자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게 없다는데, 데이지가 정성껏 간병해주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고마워.”

하지만 이제 갈 시간이었다. 방금 셀리온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마차가 도착했다고 전해 들었다.

슬슬 내려가서 가족을 맞이해야 할 터.

무서운 것은 없었다. 이미 변명거리는 만들었고, 아무런 사고도 치지 않았으니.

솔직히 잘못한 게 없는데 때리지는 않을 거 아냐?

...때리려나?

“음...”

내 몸의 흉터가 문득 생각이 나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뭐 어떡하랴. 때리면 천재지변이구나, 하고 맞아야지.

몸의 전 주인이 행했던 전적을 생각해보면 그래도 싸다.

방을 나가다 말고 문득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데이지가 눈에 들어왔다.

하룻밤 신세 잘 지고 간다는 의미로 살짝 손을 흔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또 데이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간 못 갈 것 같아서 후다닥 도망치듯이 방을 빠져나왔다.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을 애써 채찍질하며 계단을 내려가던 차였다.

조금씩 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개만 살짝 내밀어 기색을 살피니 이윽고 익숙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 있네.’

공작은 홀에서 아델과 대면하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페르와 노아는 공작의 뒤에 서서 아델을 바라보고 있고.

그냥 태연하게 내려갈지 아니면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내려갈지 고민하던 찰나, 문득 아델의 시선이 문득 이쪽을 향했다.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시선도 나를 향해 고정되었다.

당연한 걸까. 고운 시선은 오지 않았다.

온몸을 따끔따끔하게 찔러오는 적대적인 시선들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하.”

와중에 내 바뀐 옷을 바라보던 노아가 헛웃음을 내뱉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만했다.

대충 대공에게 육탄공세를 시도했다가 실패,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페르와 공작도 반응은 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심정인 듯했다.

이를 빠득 깨문 공작은 이내 한숨을 내쉬며 대공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어리석은 딸아이가 실례를 끼친 것 같소.”

아델은 나를 흘긋 쳐다보았다. 으레 아름답고 느른한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져갔다.

“어떤 실례 말씀이신지?”

“내 여식이 멋대로 대공가에 찾아와 하룻밤을 묵은 것 말이오.”

아델이 옅은 비음을 흘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여전히 고요하고 권태로운 미소를 입가에 띄운 상태였다.

“굳이 담아두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 가녀린 여인을 저택 밖으로 내몰 만큼 야박하진 않으니까요.”

딱 봐도 누군가를 겨냥한 말이었다.

나도 알아챌 정도인데 설마 모를까 싶어 눈치를 살폈더니, 역시 노아의 눈가가 살짝 꿈틀거리고 있었다.

공작 또한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굳이 반박하진 않았다.

하기야 반박하긴 뭘 반박해. 다 맞는 말이지. 비가 펑펑 오는데도 사과하라고 내보낸 건 맞잖아.

“하여튼, 편안히 돌아가시죠. 마침 공녀께서도 자리한 것 같으니.”

아델이 정중히 두어 발짝 물러서며 날 주목시켰다.

다시금 악의 가득한 시선들이 이쪽으로 날아들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계단 한가운데에 서 있기도 뭐해서, 몸을 떨면서도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날 무표정한 눈초리로 바라보던 공작은 이내 아델에게 살짝 목례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문가로 향하기 시작했다.

“가자.”

노아와 페르가 공작의 뒤를 따라갔다.

나 역시 자연스럽게 흐름에 편승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려던 순간이었다.

“아, 잠깐.”

아델이 갑작스럽게 일행을 멈춰 세웠다.

공작이 의아하다는 눈초리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대공이 볼일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닌 듯했다.

아델의 목표는 바로.

‘저요?’

그의 느른하고 여유로운 눈빛은 날 향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느낀 나는 당황하며 아델을 마주 보았다. 아델은 살짝 웃으며 입을 열었다.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택이 순간 조용해졌다.

공작이 살짝 눈가를 찌푸렸고, 페르 역시 그 포커페이스에 조금 금이 갔다.

하지만 역시 뭐니뭐니해도 가장 볼만한 것은 노아였다.

노아는 입을 쩍 벌리며 경악을 한 채 아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뭔 개소린가 싶겠지. 당장 당사자인 나도 그런데.

노아가 저러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다.

나는 얼떨결에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언젠가는요.”

살다 보면 길거리에서 한두 번쯤은 마주치겠지.

대충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건데, 뭔가 반응이 이상했다.

그의 입가에 아까 보았던, 숨이 막힐 듯 아름다운 미소가 그려진 것이다.

하녀들이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물론 난 아까 이미 적응해서 별생각이 없었지만.

'아니, 근데 왜 웃는 거여.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애매하게 주춤거리고 있던 와중이었다.

살짝 내게 고개를 숙인 그가 이윽고 홀에서 떠났다.

은연중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공작이 먼저 발걸음을 옮겼다.

페르 또한 무표정하게 몸을 돌렸지만, 노아는 부엉이마냥 끝까지 고개를 돌리면서 날 노려보았다.

붉은 눈동자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게, ‘이따가 제대로 설명 안 하면 뒤진다’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번엔 뭐가 문제야...

하지만 의외로 대공가의 정문을 빠져나가고, 마차를 탈 때까지도 별말은 없었다.

폭신한 소파에 앉아 이글거리는 눈초리를 마주하니, 새삼 다시 돌아왔다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디아룬 대공가가 편하긴 했던 것 같다.

고용인들도 다 형식적이긴 하지만 친절하고.

무서워서 눈도 못 마주치던 셀리온 공작가의 고용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물론 디아룬 대공가는 예전의 아리아를 접하지 않은 탓도 있긴 하겠지만.

‘그나저나 넓긴 넓네.’

역시 셀리온 공작가 전용 마차라는 걸까. 마차 안은 무지하게 넓고 쾌적했다.

나도 어제 이런 거 하나 태워주지.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있던 와중, 무거운 정적을 깨는 공작의 목소리에 나는 움찔했다.

“쓰러졌다고 들었다.”

나는 폭언 욕설이 돌아올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격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몸은 괜찮으냐?”

물론 형식적인 말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혹시 모를 희망을 갖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역시 헛된 희망에 불과했다. 곧바로 얼굴을 찌푸린 공작은 역시나 성을 냈다.

“비가 오면 적당히 하고 돌아오기나 할 것이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디아룬 대공에게 민폐를 끼쳐야 속이 편하겠느냐?”

나는 슬쩍 옆을 돌아보았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게 만든 원인은 지금 태연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짧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만 혼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다.

“...노아 오라버니가, 용서받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말라고 해서요.”

“괜히 내 핑계 대지 마. 그냥 사과하러 간 김에 대공 얼굴도 보려 했는데, 본전도 못 건지고 돌아오는 게 억울해서 그런 거잖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노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노아는 심기가 불편해진 듯 인상을 팍 일그러트리며 날 노려보고 있었다.

“쓰러진 것도 사실 대공한테 안 쫓겨나려고 아픈 척 연기한 거 아냐?”

그에 나는 살짝 입을 벌리며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니, 사과받기 전까진 돌아오지 말라고 그렇게 무서운 얼굴로 말했으면서.

지금 와서 저렇게 말하는 건 반칙이잖아.

게다가 내가 연기를 했다는 건 또 무슨 소리야.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차려보니 한밤중이었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진짜 아팠는데...’

하지만 그 억울함을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다.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다.

디아룬 대공가의 저택에서는 청산유수였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니 답답해 죽을 것 같았다.

내가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입술을 깨물자, 노아가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어쨌든 네겐 성공이긴 하네. 뭔 짓거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공에게 초대도 받고. 뭔 짓을 했길래 그 철벽이라는 대공이 널 다시 초대하는 건데? 진짜 밤에 몰래 옷 벗고 찾아가기라도...”

“그만.”

노아가 선을 넘으려 하자 페르가 칼같이 끼어들었다.

웬일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지.

조금 놀란 눈길로 페르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조금의 반응도 없었다. 그저 한없이 냉정하고 싸늘한 표정을 유지할 뿐.

와중에 다짜고짜 말을 끊긴 노아는 억울한 기색이었다.

“아니, 형은 답답하지도 않아? 쟤가 대공가에서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고 두둔하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 자리야. 언행을 삼가해.”

아, 그럼 그렇지. 역시 내 편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적절한 지적이긴 했다.

아닌 게 아니라 페르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공작이 한숨을 내뱉으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답답하긴 할 터다.

다 큰 자식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겠지.

물론 그 원인은 나 때문이긴 하지만.

페르의 말에 공작의 눈치를 살핀 노아가 입을 다물자, 마차 안에는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나는 그냥 구석에 찌그러진 채 세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어떻게 자리는 푹신한데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지. 가시방석이란 것이 어떤 건지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얼마나 말없이 이동만 했을까.

“대공의 반응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긴 한다만, 그래도 묻겠다.”

갑작스레 공작이 나를 향해 말을 걸었다. 분위기에서부터 무정함이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공작을 마주 바라보았다.

“별일은 없었겠지?”

별일 있으면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기가 표정에서부터 뭉클뭉클 피어나오고 있었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탓일까.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마도요.”

내뱉고 보니 애매한 답변이라 조금 후회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대공가에서 있었던 일을 길게 풀어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 빤히 바라보던 공작은 이내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의외로 쉽게 믿는 모양이었다.

역시 디아룬 대공이 막판에 내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크겠지.

그러고 보니 문득 의문이 들었다.

방에서도 그렇고, 홀에서도 그렇고. 아델은 왜 그렇게 나한테 웃어준 걸까?

그에게 있어 나는 그냥 소름 돋는 스토커가 아니던가.

그것도 스케일 크게 엮어서 사건 하나 터트린 악질 스토커.

혹시 나한테 나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사실 알고 보면, 눈매가 매섭긴 해도 다른 사람들한텐 엄청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외모라든가.

잠시 이것저것 생각하며 머리를 굴려보던 나는 이내 현실을 자각하고 쓴웃음을 흘렸다.

‘자의식 과잉.’

하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순한 감일 뿐이었다.

지금 내 처지는 대공에게도 말했다시피, 여태까지 사고 친 거 공작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수습하러 다니는 악녀일 뿐이다.

그런 주제에 뭔 놈의 공주병에 걸려갖곤.

'잠이나 자야지.'

나는 슬그머니 창문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들을 만나고 나서부터 정신적 피로도가 최고조에 달한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1분 이내로 곯아떨어질 자신이 있.

드르렁.

그렇게 유야무야 사건이 해소된 채 공작가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났다.

딱히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내 대우는 대공가에 다녀오기 전과 비슷했다.

고용인들은 여전히 날 무슨 해악을 몰고 오는 악귀인 것마냥 바라보며 피했다.

아직도 내 전속하녀는 생기지 않았다.

자청하는 하녀들도 없을뿐더러, 공작도 딱히 어떻게 해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도 딱히 별생각은 없었기에 별로 상관은 없었다. 애초에 전속하녀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변을 의식하지만 않는다면 공작저에서의 생활은 편안하고 호화로웠다.

그래도 하나 고충을 꼽으라고 한다면 딱 하나 있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나.

'에후.'

바로, 지금 방 한구석에서 의자에 앉은 채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저 눈길이었다.

진짜 레이저를 쏘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기색으로 눈을 돌리며 애써 무시하던 나는 결국 참다못해 먼저 입을 열었다.

“...뭐해?”

노아는 무표정하게 대꾸했다.

“신경 꺼.”

너라면 신경 안 쓸 수 있겠냐.

나는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을 꾹 삼켰다.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책을 읽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하다못해 허공을 바라보며 멍을 때리고 있을 때도.

아침 해가 밝으면 자기 할 일은 다 어디 갔는지 곧장 내 방으로 와서 나만 감시했다.

그러다가 저녁을 먹고 잠이 들 때쯤 되면 퇴근.

조금 트인 말문으로 이야기라도 시도해보려 한 적도 있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사람 말려 죽이고 싶기라도 한 거냐고.

하지만 그때마다 노아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나라고 너랑 있고 싶은 줄 알아? 네가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못하게 하도록 아버지가 지시한 걸 어떡하라고.”

그래.

말은 설득력이 있었는데 행동에서 신빙성이 없었다.

저건 그냥 딱 봐도 나 부담스러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공작이 지시를 했다지만 이렇게 24시간 붙어서 밀착감시를 하라는 뜻은 아닐 텐데.

그런데 노아는 그걸 어떻게 곡해해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알아듣고도 저렇게 하는 건지.

‘에휴.’

한숨을 내뱉은 나는 끙차 몸을 일으켰다.

며칠 새 익숙해진 저택의 구조를 되새기며 서재로 향하던 중 흘긋 뒤를 돌아보았다.

노아가 대여섯 발자국 떨어져서 걸어오고 있었다.

‘이러다가 진짜 욕실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서재에 들어서니 종이 특유의 고풍스러운 나무 냄새가 풍겨왔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눈을 감고 음미하다가 천천히 책장으로 걸어가니, 노아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쪽을 향해 날아왔다.

애써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를 쓰며 어제 읽던 책을 집어 들었다.

책의 제목은 해안 왕국 베네치아의 역사.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 역사책이었다.

‘하지만 은근히 꿀잼이라는 거지.’

원래 전생에선 역사 따위에 흥미가 있는 편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판타지 세계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곳 역사책들은 나름대로 재밌는 편이었다.

소드마스터도 나오고 마법사들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란다.

고증이 잘 된 판타지 설정집이라 해야 할까.

적어도 클리셰 덩어리라고 봐도 무방한 로맨스 책들보다는 나았다.

첫날에 모르고 로맨스 책을 펴들었다가 얼마나 낭패를 봤는지.

근처 소파에 다가간 나는 편안하게 엎드리며 책을 펴들었다.

지난번까지 읽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책장을 꼼지락거리던 와중이었다.

“쯧.”

역시나, 혀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책 읽는 자세가 또 눈꼴 시린 모양이었다.

진짜 애 버릇 잡으려는 극성 학부모도 아니고. 어휴.

속으로 살짝 한숨을 내쉰 나는 애써 노아를 무시하며 책장을 넘겼다.

뭔가 표지에서부터 풍겨오는 판타지스러운 느낌에 눈을 빛내며 집중하려던 찰나였다.

뒤에서 차갑고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빵을 베어먹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정말 다 내려놓은 거야? 엎드려서 책을 읽는 게 말이 돼? 엘리움 후작가에서 대체 뭘 배워 온 거야?”

“...”

누가 말했는지는 안 봐도 뻔했다.

잠시 우물쭈물거리던 나는 몸을 일으켜 자세를 바로했다.

여기서 내가 입을 열어봐야 싸움밖에 안 난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지.

원작의 아리아의 심정이 이해되는 기분이었다.

뭐만 하면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고 태클을 거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미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

‘조금 불쌍해지는 것 같기도...’

하여간 잡념을 뒤로 한 채 책을 들고 책상에 앉자, 다시금 지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박혀 들었다.

“ 해안 왕국 베네치아?”

이렇게 뭐만 하면 곧바로 옆에서 간섭을 해왔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시달리는 중이었다.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그나저나 내가 읽는 책 제목은 어떻게 본 건지.

몽골인이냐.

살짝 돌아보자, 여느 때처럼 무시와 비웃음을 담은 노아의 눈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읽기는 해? 괜히 어려워 보이는 책 펴서 읽는 척하지 말고 원래 네가 읽던 거나 봐. 네 수준에 맞는 거.”

노아가 어느 책장을 가리켰다.

멀리서 봐도 분홍빛이 아른거리는 책들이 잔뜩 꽂혀있는 책장이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니, 표지에서부터 벌써 삼류 로맨스 소설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난 떨떠름한 눈초리로 노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저것들을 읽었다고?”

“그래. 매일 책 읽고 공부 좀 하라고 하면 저따위 것들만 읽었잖아. 하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만.”

노아의 말에 순간적으로 착잡함이 밀려왔다.

대체 이 세계에 얼마나 오락거리가 없었으면 저 재미없고 뻔한 걸 꾸역꾸역 읽어왔을까.

난 딱 한 권 읽고도 너무 식상해서 토할 뻔했는데.

“저런 삼류 소설에 정신이 팔리니 네가 그따위로 큰 거야. 엘리움 후작을 왜 찔렀겠어? 애초에 넌 근본도 잘못되고, 교육도 잘못한 거지. 어찌 보면 네가 알아서 잘 할 거라 믿었던 우리 잘못이네.”

“...”

멸시가 가득 찬 말들. 적의가 잔뜩 담겨 있는 목소리와 눈빛.

새삼, 노아가 얼마나 나를 싫어하고 있는지 와닿았다.

수많은 생각이 들었다.

대체 이 매서운 눈초리의 악녀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이리도 거부감을 표출해내는 걸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 대체 언제였을까.

파탄으로 치달은 이 관계가 앞으로 개선될 수는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친해지기 위해 막 들이댈 수는 없다.

애초에 친화력 제로인 내 성격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몸에 남은 흉터들이 마음에 걸렸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흉터를 낸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바로 공작가의 사람들이었다.

공작과 페르, 노아는 물론이고 고용인들도 그 후보의 범위에서 피할 수는 없다.

누가, 왜 이렇게 아리아의 몸에 학대를 받은 흔적을 남겼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범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니, 자연스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사라졌다.

그저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대의 동정을 갈구하는 수밖에는.

“...쯧.”

하지만 노아는 눈썹을 찌푸릴 뿐이었다. 뭔가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치였다.

팔짱을 낀 채 내 얌전한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그가 이내 입을 열었다.

“왜 갑자기 얌전한 척을 하는 거야? 설마 진짜 네 행동을 반성했을 리는 없을 테고.”

개과천선했다고는 정말 죽어도 생각 안 하는구나.

하긴 나라도 사고만 치던 사고뭉치가 가만히 집 안에 짱박혀 있으면 뭔 꿍꿍이인가, 할 터였다.

대답도 못 하고 시무룩하게 책을 뒤적거리던 와중이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넌 엘리움 후작가로 다시 가야 해.”

등한시할 수 없는 말이었다. 퍼뜩 고개를 들어올린 나는 멍한 눈초리로 노아를 바라보았다.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다시 가야 한다고?”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

노아가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사과는 애초에 다른 문제고. 양 가의 합의하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한, 너는 아직 엘리움 후작가의 소속이야. 레이첼 부인이 말하는 걸 못 들은 거야?”

아직도 레이첼 부인의 살벌한 얼굴을 떠올리면 살이 떨렸다.

그런데 다시 거길 가야 한다고? 심지어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확인한 노아가 하,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아니, 본색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색기야.

엘리움 후작가에서 나를 거부하지 않는 건가? 무려 가주가 죽을 뻔했는데?

“결국 다시 엘리움 후작가에 가기 싫어서 이렇게 얌전한 척 한 거였냐? 그럼 그렇지.”

가기 싫은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사과를 해야 하긴 했고, 이렇게 엮인 이상 언젠가 한 번쯤은 반드시 가게 될 테니까.

하지만 거기서 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다.

이미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고 했던 안주인을, 엘리움 가문의 사람들은 과연 다시 받아줄까?

오히려 자신들의 주인을 죽이려 한 대가를 받겠다며 보복하지나 않으면 다행일 터.

내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이 느껴졌다. 아마 지금 거울을 보면 새하얗게 질려있겠지.

한가하게 책이나 볼 때가 아니었다.

나는 책을 내려두고 급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노아가 눈살을 찌푸리며 날 노려보았다.

“뭐 하는 거야?”

“...아버지.”

내 자그마한 목소리에 노아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되물었다.

“뭐?”

“아버지를 봬야겠어.”

그 말을 한 나는 급히 방을 뛰쳐나왔다.

“야, 야!”

뒤에서 노아의 당황한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신경을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공작의 방이.’

얼마 전에 대충 익혀두었던 저택의 구조를 떠올리며 나는 빠르게 다리를 놀렸다.

지나가던 고용인들이 날 보고 기겁하며 양옆으로 빠르게 물러섰지만, 지금만큼은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비켜줘서 감사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야! 거기 서!”

뒤에서 노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저놈 투정 하나하나 다 받아주고 있으려다간 오늘 하루가 다 갈지도 모르니.

모세의 기적마냥 고용인들 틈 사이로 쫙 열린 길을 달리다 보니 공작의 방에 도착하는 것은 금방.

가쁜 숨을 다스릴 새도 없이 문을 발칵 열고 들어간 나는 급히 공작을 찾았다.

하지만 공작은 보이지 않았다.

공작이 앉아있어야 할 집무실의 의자에는 다른 사람이 있던 것이다.

‘페르...?’

방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었던 듯, 한 손에 서류를 든 그가 살짝 놀란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공작의 집무실인데 왜 공작은 없고 네가 있냐.

순간적으로 뇌정지가 와서 멍을 때리고 있던 와중, 득달같이 뒤를 쫓아온 노아가 내 손목을 잡아챘다.

“읏...!”

순간 느껴지는 격통에 신음을 흘렸지만,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며칠 얌전한가 싶더니 조금 한가하다 싶으니까 또 발광을 해!? 넌 역시...!”

“그만.”

차가운 목소리에 노아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페르가 서류를 내려두며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눈에 깃들어있던 옅은 당황은 어느새 사라진 채였다.

여느 때와 같은 냉정함과 싸늘함이 풀풀 풍겨왔다.

“무슨 일이지? 노아.”

제 형의 냉정한 눈초리를 마주한 노아의 손아귀 힘이 조금씩 느슨해져갔다.

그래도 놓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잠시.

페르의 눈길을 받은 노아는 한숨을 내뱉으며 내 손목을 던지듯이 놓았다.

‘아야야...’

발갛게 달아오른 것이 뭔가 조금 있으면 퉁퉁 부을 것 같았다.

시큰거리는 손목을 잠시 매만졌지만, 노아는 신경도 쓰지 않고 버럭 성을 내며 날 가리켰다.

“보면 몰라? 얘가 또 지랄하려는 거 막고 있었잖아!”

“갑자기?”

페르는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기울였다.

의아하긴 할 테지. 여태까지 얌전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개지랄을 떤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하니까.

하지만 노아는 완고했다.

가만히 놔두면 내가 꼭 사람이라도 한 명 죽였을 것처럼. 자기는 돌발행동을 막았을 뿐이라는 것같이 당당한 자세였다.

“아직 지가 엘리움 가문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해주니까 갑자기 발작하더니 이쪽으로 뛰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으러 달려온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꼭 자기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아이가 투덜거리는 것 같았다.

페르가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 말이 맞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눈초리였다.

나는 압박감을 꾸역꾸역 이겨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 다시 엘리움 후작가로 가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반쯤은 노아의 말이 맞긴 했다.

아니, 솔직히 사람이 낯짝이 달려 있으면 엘리움 후작가에서 계속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공작이 있었으면 머리박고 싹싹 빌어서라도 어떻게든 비벼볼 생각이었다.

제발 공작가에 남게 해달라고.

그런데 솔직히 발작이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내가 한 건 그냥 여기까지 우다다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페르는 할 말을 찾는 듯 잠시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사과는 하러 가야겠지.”

사과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았다. 그런데 난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

노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페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을 터였다.

아니면 아예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하거나.

그런데 페르는 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건에 대해 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불편한 눈길을 이쪽으로 보내올 뿐.

그 침묵에서 긍정을 느낀 나는 허탈하게 헛웃음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서류를 만지작거리던 페르는 한숨을 내뱉었다.

“노아의 말이 틀리진 않아. 넌 아직 엘리움 후작과 사실혼 관계를 파하지 않았고, 후작가 측에서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잠시 주저하던 페르는 이내 못을 박듯, 말을 이었다.

“네 이름은 아리아나 셀리온이지만, 넌 아직 엘리움 후작가의 소속이야.”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멍하니 페르를 바라보자, 안 그래도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불편하다는 듯 더 굳기 시작했다.

가슴 속에 불덩이가 있는 듯 답답했다. 나는 양손으로 주먹을 꼭 쥔 채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어...?”

진짜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려는 건 학창시절 이후로 오랜만이었다.

며칠 동안 꾹꾹 참아왔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았다.

전생에서 좋게 말하면 무골호인. 나쁘게 말하면 호구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머리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도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무시당하면 화가 난다.

나도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페르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대신 대답이 나온 것은 뒤에서였다.

"뭐? 니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럼 잘했냐? 왜 네가 피해자인 척이야?"

갑작스러웠다. 나는 입을 벌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노아의 팩트 폭행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복이 두려우면 엘리움 후작에게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 네가 저질러 놓고 되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러는 건데?”

“노아.”

“형은 가만히 있어 봐. 야. 너 지금 네 입장은 알아? 디아룬 대공가에서 하룻밤 자고 오니 눈에 뵈는 게 없지? 벌써 디아룬 대공이랑 결혼이라도 한 것 같냐?”

목소리는 계속 뒤에서 들려왔지만, 난 몸을 돌리지 않았다. 뒤에 서서 얼마나 날 노려보고 있는 건지, 뒤통수가 다 시큰거렸기 때문이다.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살기다 뭐다 하는 거 다 개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존하는 거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넌 제국의 귀족을 죽이려 들었다는 혐의로 벌써 저잣거리로 내쫓겼어.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그딴 말을 지껄여? ”

“...그.”

“제발 부끄러운 줄 알아. 어쩌다가 저리 되가지곤.”

입을 열 때마다 말은 칼같이 끊겼다.

노아는 이글이글 눈빛을 태우며 날 노려보았다.

“네게 우리에 대한 양심이 일말이라도 남아있다면 순순히 네 죗값을 받아. 알겠어?”

한 마디 한 마디가 비수처럼 마음에 꽂혀 들어왔다. 결국,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노아의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긴 했다.

하지만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게 맞긴 하니까.

그냥 겉으로만 들어보면 이게 뭔 개소린가 싶지만 그게 진실이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내가 한 게 맞다고 인정하기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다.

“알겠냐고 묻잖아!”

노아가 버럭 소리를 질러 나는 움찔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는 이 엄청나게 답답한 상황을 잠시 속으로 곱씹으니, 이내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입술을 꾹꾹 깨물며 참으려 했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결국, 눈가에서 눈물이 조금씩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이씨...’

눈가를 주먹으로 한 번 훑으니 팔뚝이 축축하게 젖었다.

코가 눈치도 없이 마구 흘러나와서 몇 번 훌쩍였는데, 왠지 더 서러워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냐고. 사람 피 한 번도 안 보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진짜 몇 초만 빨리 빙의했어도...'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까부터 주변이 조용했다.

주먹으로 눈가를 문지르다 말고 슬그머니 주변을 살피자, 페르가 무표정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니. 무표정인가?

나는 내심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래도 며칠이나 봤다고, 저 포커페이스에도 감정변화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당황한 건가...?’

울리려고 작정을 하긴 했었는데, 진짜 우니까 당황하는 건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 다시 고개를 숙이니 뭔가 진 기분이 들었다.

“...알겠어.”

그렇게 말한 나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꾹꾹 눌러 삼키며 방을 터벅터벅 걸어 나가기 시작했다.

와중에 노아와도 눈이 마주쳤다.

애써 안 마주친 척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는데, 다행히 따라오진 않았다.

더해서 팩트의 탈을 뒤집어쓴 비난도 들려오지 않았다.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뱉은 나는 조용히 속으로 씨부렁거리며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쁜 놈들. 간다, 가. 가면 될 거 아냐. 잘 먹고 잘살아라. 퉤퉤.

아리아가 나간 방. 그곳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서류를 앞에 늘어놓은 페르는 아리아가 나간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노아는 여전히 엉거주춤하게 서 있었다.

여느 때와 다를 것은 없었다.

다만 굳이 다른 점을 꼽으라면, 기중에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불편한 침묵을 되새기던 노아가 이내 이를 빠득 갈며 입을 열었다.

“악어의 눈물이야. 형도 알 거 아니야? 쟤가 여태까지 얼마나 뻔뻔하게...”

“울었어.”

하지만 페르의 한 마디에 노아는 금세 닥치고 말았다. 그만큼 현실을 되새긴 한 마디의 파급력이 컸던 것이다.

보일 듯 말 듯 한숨을 내뱉은 페르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리아가 운 적이 있던가?”

노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리아는 절대 울지 않았다.

자신이 부린 패악의 크기를 감당하려면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는 것처럼, 아리아는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기억은 안 나지만, 막 태어났을 때도 울지 않고 표독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리아는 냉혹한 성격이었다.

한없이 높은 자존심과 자존감은 아리아 특유의 본질이라고 해도 좋을 터였다.

그런데 그런 아리아가 울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것도 자신과 노아의 앞에서.

평소 그녀의 성격을 아는 그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성격은 아닐 텐데.

쯧.

페르가 혀를 차며 노아를 바라보았다.

대체 아리아가 공작가로 돌아오고 얼마나 괴롭혀댔으면 그 아이가 눈물을 보인단 말인가.

물론 노아가 틀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이 찜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잠시 책상을 톡톡 두드리던 페르는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아리아한테 가.”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노아를 흘긋 바라보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허공을 빤히 응시하는 중이었다.

페르는 서류를 들어 올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가서 사과하고 와.”

“뭐!? 내가 왜...!”

아까와 달리 곧바로 반응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페르의 서늘한 눈빛이 노아를 향하자, 노아는 입을 다물었다.

페르는 내심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네가 아리아의 방에서 했던 일들은 도를 넘었어.”

“뭐? 난 아버지의 명령을...!”

“그 명령이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방해하라는 뜻이 아니었을 텐데?”

정곡을 찌르는 냉정한 일침이었다. 노아는 할 말이 없다는 듯 이를 빠득 갈았다.

페르의 말대로, 노아 또한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아리아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작에 터졌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늦게 터진 것이다.

“알겠으면 당장 가서 사과하고 와.”

손을 내저은 노아는 언짢다는 내색을 풀풀 풍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알았다고.”

노아가 방을 나가고 나서야, 페르는 몸에 힘을 뺄 수 있었다.

사실 노아가 아리아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그간 노아가 얼마나 아리아에게 시달려왔는지 알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아리아가 선을 넘기 전까지만 해도, 가장 열정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아리아를 두둔했던 아이다.

아버지와 자신이 서서히 지쳐갈 때도 끝까지 아리아를 감쌌으니 그만큼 배신감도 컸을 터.

“...하아.”

옅은 한숨을 내뱉은 페르는 착잡하게 깃펜을 집어 들었다.

집중은 하나도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했다.

안 그래도 아리아의 일을 수습하느라 바쁜 아버지에게 더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었으니.

페르는 심란한 마음을 다잡으며 서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특유의 엄청난 집중력과 몰입은 금세 잡생각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다.

노아가 나간 지 얼마나 지났을까. 쾅! 하는 과격한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다시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색이 된 노아. 페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아, 아리아가 사라졌어!”

“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에 페르가 순간 눈썹을 일그러트리며 되물었다.

사라졌다고?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재차 물어보기도 전에 노아가 한발 앞서서 빠른 속도로 말을 이었다.

“방에 가봤는데 없어서 고용인들한테 물어봤는데, 방금 마차를 타고 저택을 나갔대. 아무래도...”

페르는 노아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벌떡 일어섰다. 은연중 배여 있던 냉정한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셀리온의 핏줄은 모두 불같은 분노의 성정을 타고 난다.

특히 노아와는 달리, 셀리온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공작과 페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하지만 페르는 타고난 노력으로 그 분노의 성정을 제어하며 냉정함을 유지해왔다.

공작이 어릴 때부터 이성을 다스리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페르도 눈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노아는 불안하게 말을 이었다.

“형, 진정해. 아직 아리아가 디아룬 대공가로 갔다는 보장은 없어. 예전처럼 시내로 놀러 갔을지도 모르잖아.”

“찾아.”

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눈이 돌아간 듯했다. 평소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진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대신,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는 안광이 그의 붉은빛 눈에 자리하고 있었다.

노아는 침을 삼키며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피했다.

“아직 엘리움 후작가에서 있던 일이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어. 만약 아리아가 다른 귀족들의 눈에 띄면 일이 귀찮아질 거야.”

그래도 다행히 완전히 이성을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이 상황에서도 아리아의 돌발행동으로 얻게 될 득실을 따지고 있으니.

그렇다고 또 정상은 아니었다. 경험상, 저건 폭발하기 직전의 반응이었다.

“디아룬 대공가에 연락을 보내. 얼마 가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 평소에 아리아가 수도에서 다녔던 곳을 모조리 뒤져. 온 저잣거리를 뒤엎어서라도 데려와. 알겠어?”

“...알겠어.”

역시나 무시무시한 집착이 느껴졌다. 노아는 빠르게 방을 나섰다.

나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멍을 때리고 있었다.

일단 심란한 마음에 집을 뛰쳐나오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집에 있기는 싫었다. 사춘기 때도 가출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건만, 여기서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오히려 묘한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며칠 동안 내내 날 지켜보던 노아의 따가운 눈초리가 없는 덕일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끔찍한 일이었다.

설마 재채기해도 품위있게 못하냐고 욕을 먹을 줄은 몰랐지.

그나저나.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일단 이 저택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나는 집무실을 나오자마자 마차 쪽으로 직행했다.

그런데 마부가 내가 오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태운 뒤 출발한 것이다.

어디로 가는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출발하다니. 설마 어디 팔아버리려는 속셈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렇다기엔 마차가 지나치고 있는 풍경은 나름 번화한 거리였다.

고급스러운 복장의 귀족들도 속속들이 눈에 들어왔다.

'설마 이렇게 대낮에 거리 한복판에서 팔아넘기기야 하겠어.'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와중, 마차가 멈추었다. 마차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게 앞.

마차에서 내려 대충 분위기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드레스 샵인 모양이었다.

멍하니 그 가게를 올려다보고 있자 내 눈치를 살피던 마부가 조심스레 다가와 간언했다.

“아가씨께서 평소 자주 오셨던 곳으로 왔습니다만. 혹시 마음에 두고 계셨던 곳이 아니라면 다른 곳으로...”

내 눈치를 보는 마부를 보니 뭔가 안쓰러워졌다.

엘리움 후작가로 가고 몇 년 동안은 그래도 마주칠 일이 없었을 텐데.

대체 얼마나 시달렸으면 아직까지 아리아의 외출 동선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한숨을 내쉬니 마부가 더욱 사색이 되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뭔가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은 오해가 퍼질까봐 나는 황급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

딱히 어딜 갈 생각은 아니었기에 별로 상관은 없었다.

마부는 그제야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이상 남에게 피해 끼치는 건 지긋지긋했다.

“그럼 예전처럼 거리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 편하실 때 불러주십시오.”

꾸벅 고개를 숙인 마부는 말릴 새도 없이 마차에 올라타고 출발했다.

반쯤 손을 뻗다 만 나는 이내 포기했다. 어떻게 부르라는 건진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나저나...’

불안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니 꽤 고급스러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돈이라 할만한 건 안 가져왔는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대충 그런 생각을 하며 멍하니 안을 살피고 있던 와중이었다. 생각보다 오래 있었는지, 샵의 직원들이 내 존재를 눈치챈 듯했다.

[저 사람 뭐하는 거야?]

[몰라. 행인이겠지.]

[살 돈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구경만 하는 건지.]

아주 미약하게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무안해진 나는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갈까 고민했다.

어쨌든 돈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조금 늦은 듯했다. 몸을 돌리려던 그때, 내 동태를 살피던 직원이 언짢은 표정으로 가게를 나왔다.

“손님. 이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영업에 방해가...”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신경질적으로 말을 잇던 직원의 표정이 멍해졌다.

내 얼굴을 확인한 직원이, 슬쩍 내 옷차림에 박혀있는 셀리온의 문양을 확인했다.

그러더니 내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직원은 조금씩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했다.

“세, 셀리온...?”

“...왜요?”

나는 떨떠름한 눈초리로 직원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눈을 까뒤집고는 스르르 쓰러졌다.

털썩.

나는 갑작스레 일어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다.

얘 뭐야. 왜 쓰러져. 지병 있나?

하지만 상황을 파악할 새는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쪽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제야 나는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뭔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얘를 기절시킨 것처럼 되지 않는가.

아니 그 전에 눈만 마주쳤는데 왜 쓰러지는 거야.

한번 몰린 인파는 무슨 일인고 하면서 더더욱 몰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시선에 난 당황하면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할 새도 없었다.

어느새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들 사이에서, 조금씩 내 이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리아나 셀리온? 저 사고뭉치 망나니가 왜 수도에?”

“엘리움 후작과 같이 후작령으로 간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 소식 못 들으셨나요?”

이후로는 내 눈치를 보는 건지 확연히 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들리는 것도 아니었다.

공녀, 디아룬 대공, 엘리움 후작, 단검.

이렇게 네 개만 들렸는데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짐작이 갔다.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공개처형을 당할 줄이야.

하지만 내가 걱정한 건 그게 아니었다.

“저 자는 왜 기절한 거지?”

“딱 보면 몰라? 셀리온 공녀잖아. 저 악녀가 무슨 짓을 했겠지.”

“허, 수도에 올라오자마자 이런 짓을...”

아니나 다를까.

내 앞에 쓰러져 있는 직원을 확인한 사람들은, 내 악명과 더불어 무럭무럭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다.

어느새 주변의 여론은 내가 직원의 턱에 죽빵을 날려서 기절시킨 것 비슷한 무언가로 되어있었다.

설마 내가 직접 해명해야 하는 건가.

'어떡하지.'

하여튼 이렇게나 사람이 몰렸는데 샵에서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리며 어떻게 하지 생각하던 와중, 딸랑- 샵의 문이 열리며 어느 부인이 나왔다.

아무래도 저 샵의 마담 같았다.

구름같이 모여든 인파를 살피다가 나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이내 품위 있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공녀님.”

뭐지, 날 아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웃거렸던 나는 아까 마부의 말을 떠올리고 이내 납득했다. 늘 가던 외출 코스면 마담이 기억할 만도 하지.

그것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셀리온 공작가의 장녀이니.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듯, 마담은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다.

“거의 칠 년 만이군요. 여전히 잊지 않고 저희 샵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년? 후작가로 간지 7년이나 된 건가.

지금 아리아의 나이가 스물셋이지 않았나? 대체 결혼을 몇 살 때 한 거야?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아는 게 없는데 입을 열어서 뭐하겠는가. 괜히 의심만 받는 것보단 그냥 닥치고 있는 게 낫지.

게다가 뭔가 태도를 보아하니 내게 그다지 적대적인 것 같지는 않았다.

어쩌면 아리아도, 자신의 단골 가게에서는 꽤 괜찮은 손님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하지만, 수도로 돌아오시자마자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주변에 그리 달갑게 보이진 않을 텐데요.”

들기는 개뿔.

역시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다.

예상하긴 했지만, 아리아는 그다지 좋은 손님은 아니었던 듯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마담을 바라보다가 이내 직원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직까지도 직원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흥건하고 호흡도 고르지 않은 걸 보니 제대로 실신한 모양이었다.

빨리 얘가 일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할 텐데.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뭘 했다고 실신까지 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억울해진 나는 울컥하며 마담을 바라보았다.

내 눈빛을 마주한 마담이 살짝 동요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좌중에 침묵이 일었다. 내가 말하는 게 그렇게 신기한 건가.

잠시 대답을 기다리던 나는, 마담이 못 들었나 싶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쓰러졌...”

“그걸 믿으라는 건가?”

군중 사이에서 날아온 목소리가 내 말을 끊었다.

나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가장 앞에 선 이가 내 얼굴을 마주하고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따로 나서는 이는 없었다.

멍하니 사람 무리를 둘러보던 와중이었다.

첫 흐름을 잇는 웅성거림이 인파 사이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쓰러졌다는 게 말이 돼? 분명 뭔가를 했겠지.”

“역시 개차반 망나니답군.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저렇게 뻔뻔하니까 하나뿐인 부군이 될 사람을 죽이려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꽤 부유하게 보이는 거리였다. 그만큼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분도 낮지는 않았다.

최소 대부분이 귀족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만큼 거리낌이 없었다.

사교계에 퍼진 내 소문을 뒷받침 삼아 그들은 새롭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무럭무럭 만들어냈다.

“대체 어떻게 해를 가했으면 직원이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상대가 평민이라 해도 저런 패악질을...”

다수의 힘은 대단한 법이다.

어느새 그들은 나를 순간적인 충동을 못 이겨 직원을 기절시키고, 이 자리를 피하려 거짓말까지 하는 패악스러운 개망나니로 만들어냈다.

더 억울한 건, 이 상황에서도 내가 입을 못 열겠다는 것이다.

'...아.'

도저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 손으로 목을 감싸며 입을 벌렸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조금씩 미칠 듯한 폐쇄감과 공포감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호흡도 점차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았다.

‘답답해.’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이 꼭 물속에 있는 기분이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이 직원처럼 쓰러져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나도 저 직원처럼,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동정해줄까.

잠시 고민하던 나는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단 뒷일은 잠시 후의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며 그대로 쓰러지려던 그때였다.

다리가 풀리기 직전. 누군가가 나를 끌어안았다.

“괜찮으십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이 차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이어서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은 낮고 조용한 목소리.

“우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만나게 되었군요. 운명이라 해도 좋을까요?”

어딘지 모르게 권태감이 느껴지는, 침착하고 잔잔한 목소리였다.

탄탄한 가슴팍에 파묻힌 채 위를 올려다보니 사파이어처럼 진한 푸른빛 눈동자가 눈에 들어왔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 아름답고도 권태로운 눈가가 호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나는 갑작스레 마주친 아델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왜 댁이 여기 있으세요.

사람들 또한 갑작스레 튀어나온 그의 정체를 깨달은 듯했다.

주변에서부터 조금씩 술렁이는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디, 디아룬 대공?”

“수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그 술렁거림은 더욱 커져만 갔다.

물론 당사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진 않다는 듯 자그마한 목소리긴 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한 마디씩 하니 조용할 리 없었다.

나와 디아룬 대공간의 추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이랴.

물론 당사자인 대공 앞에서 추문을 입에 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황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겠는가.

물론 나는 그 위험도 감수하고 웅성거리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 당사자인 나조차도 의문인데 저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대, 대공 각하...?”

얼떨떨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자, 아델이 불렀냐는 듯 한쪽 눈썹을 까딱이며 날 내려보았다.

그조차도 그림이었다.

겁나 잘생겼어. 세상에.

“부르셨습니까?”

“아, 아니. 각하께서 여길 어떻게...”

아델은 그때까지 내 허리를 감싸고 있던 손을 살며시 떼었다. 정중히 한두 발자국 물러난 그가 빙긋 웃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던 군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우연히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왜 이렇게 우연을 강조하는 것 같지?

하지만 의문을 가진 것은 찰나였다. 그가 얼굴에 웃음기를 빼고 진지하게 날 살피기 시작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조금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일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숨이 편안하게 쉬어졌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 사람한테 가 있어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도 떨리지 않았다.

손이 아직 조금 차갑긴 하지만, 수족냉증은 어쩔 수 없지.

나는 잘 움직이는 손가락을 괜스레 꼼지락거리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행이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공작가까지 모셔드려도 되겠습니까? 혹 이곳에서의 볼일이 끝나지 않으셨다면 다 보셔도 괜찮습니다만.”

내가 황급히 고개를 도리도리 내젓자 아델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허리를 굽힌 그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근한 사이였다고 이러세요?

목구멍 끝까지 그 말이 치솟아 올랐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대공에게 개쪽을 줄 수는 없었다.

그건 그거대로 곤란할 것 같으니 닥치고 있을 수밖에.

물론 감사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다. 지금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추하게 길바닥을 나뒹굴고 있었을 테니.

일단 자리부터 피하자는 생각에 나는 황급히 그가 내민 손을 맞잡았다.

내 손이 차가워서 그런지, 따스한 부드러움이 새삼스레 와닿았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실 셈인가요?”

그렇게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발을 붙든 것은 마담이었다.

예상치 못한 거물의 등장에 당황한 듯 어물거리고 있다가, 아델이 나를 데리고 떠나버릴 기미를 보이자 급히 붙잡은 것이다.

“적어도 제 가게의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는 하고 가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델이 마담을 돌아보았다. 그의 푸른 눈은 방금 내게 향했던 눈초리와는 달리, 시릴 정도로 무감정했다.

저건 첫날에 내가 그의 저택을 방문했을 때 눈빛이 아니던가. 내가 저걸 어떻게 버텼는지 기억도 안 나네.

아델을 마주한 마담도 그걸 느꼈는지 움찔하며 두어 걸음 물러섰다. 그녀를 묵묵히 바라보던 그는 이내 입을 열었다.

“증거는?”

“네?”

“공녀께서 저 아이를 기절시켰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델의 푸른 눈이 느른하게 빛났다.

너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것처럼 특유의 권태감이 진하게 서려 있었다.

꼭 배부른 늑대 같았다.

마담은 당황하면서도 아직까지 쓰러져 있는 직원을 가리켰다.

“이, 이 상황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제 직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쓰러질 리가 없...”

“실질적인 증인이나 증거는 없단 말입니까?”

그의 푸른 눈빛에서 느른함이 점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옅은 살기와 위압감.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던 마담은 그 눈빛을 마주하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아델은 사늘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심증만으로 한 제국의 공녀를 압박했던 것이란 말이군요.”

마담은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질근 깨물었다. 뭔가 속이 시원했다.

그게 방금 내 심정이야, 임마.

“아, 압박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럼 설명하세요. 단지 심증만으로 내 앞을 막아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내 앞을 지키고 선 아델의 넓직한 등은 엄청나게 든든했다.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모두가 날 미친년망나니로 몰아가는 와중,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다.

“히포르테 백작 부인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귀족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덮어놓고 도망가면...”

“엘리움 후작의 일도 그렇고, 그것이 공녀의 특기지 않습니까. 셀리온 공작께선 여전히 편하실 날이 없겠군요.”

“그나저나 디아룬 대공께서 왜 저 악녀의 편을 드는 건지...?”

금세 이 주변이 날 향한 매도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다시금 온몸을 콕콕 찔러오는 악의에 움츠러든 나는 아델의 옷자락을 살며시 부여잡았다.

아델은 나를 살짝 돌아보더니 이내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날 포기하는 건가 싶어 살짝 두려워질 때쯤, 그가 조용히 목소리를 내었다.

“정신을 차렸으면 눈을 뜨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음에도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시장통처럼 어지럽던 인파는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다.

아델은 그런 그들을 흘긋 둘러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끝까지 일어나지 않을 셈입니까?”

허공에다가 대고 말하는 것 같은 모양새에 마담이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델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릴 뿐. 하지만 대답은 끝까지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그의 목소리에 옅은 짜증이 깃들었다. 느른하던 푸른 눈빛이 조금씩 사납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네가 지금 누구를, 그리고 몇 사람을 기만하고 있는지 알면서 그러는 것이겠지?”

그때, 의식을 잃은 줄 알았던 직원의 몸이 움찔 떨렸다.

난 그제야 여태껏 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던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이내 직원에게로 시선이 속속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시선에 압박을 받던 직원은 결국 눈을 반짝 떴다.

그리고는 번개같이 몸을 바짝 낮춘 채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박았다.

“죄, 죄송합니다! 일어날 타이밍을 놓쳐서 그만...”

뭐 이 새끼야?

순간 얼탱이가 털린 나는 바짝 엎드린 채 벌벌 떨고 있는 직원을 노려보았다.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온갖 정치질 다 먹고 있던 게 누군데.

순간 울컥했지만 아델의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제지했다.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인 그가 다시 직원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사실을 고하라. 공녀가 네게 무슨 짓을 했던가?”

“아, 아니오. 공녀님께선 저를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담의 안색이 새파래지고, 좌중이 침묵했다.

아델은 더 설명이 필요하냐는 듯 마담을 흘긋 바라보았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허리를 숙였다.

“죽,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를...”

“왜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까?”

아델의 눈빛이 다시 느른함을 띠었다.

그것을 확인한 마담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상황을 돌이킬만한 재량은 없었다.

주저하면서도 내게 시선을 향한 마담이 천천히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공녀님.”

하지만 깊이 사과하면서도 눈가가 조금씩 젖어 드는 것이, 어지간히도 분한 듯싶었다.

나한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럴까. 뭔가 조금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한숨을 내뱉은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아요.”

솔직히 갑자기 마녀사냥당할 뻔한 게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뭐, 별수 있겠는가.

다 내 업보려니 해야지.

“나도 칠 년 전엔 당신에게 해를 많이 끼쳤을 테니까. 이것으로 서로 없던 셈 치죠.”

그러자 마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순순히 넘어가 줄 줄은 몰랐던 듯했다.

하긴, 현대로 치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갑자기 턱에 죽빵을 맞았는데 합의금도 안 받고 보내주는 셈이니.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여기서 화를 내봐야 딱히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이왕 사는 거 굳이 적을 만들 필요도 없지 않은가.

게다가 무엇보다도. 아빠 곰 뒤에 숨은 채 주먹으로 을러대는 새끼 곰이 된 기분이라서 그리 유쾌하진 않았다.

여기서 용서를 안 하면 뭐 어쩌게. 대공한테 쟤 좀 때려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델은.

“...”

나를 묘한 눈길로 쳐다보고 있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데 그렇다고 뭔가를 또 하기엔 조금 상황이 그랬다.

“...가요.”

괜히 이 상황이 부끄러워진 나는 급히 아델을 잡아 이끌었다.

둥글게 둘러쌌던 인파들은 모세의 기적마냥 순식간에 길을 열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그 사이를 빠져나왔다.

아델은 내게 시선을 떼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을 즐기는 것 같기도 했다.

몇 살일까. 원작에서 언급은 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묘한 분위기가 연령을 짐작하기 힘들게 했다.

새카만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아 흑요석처럼 빛났다.

나른하게 반쯤 감긴 채 햇빛을 즐기는 푸른빛 눈동자. 잡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는 그림 그 자체.

게다가 아델의 외모는 막연하게 잘생겼다고만 하기는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달 같아.’

이 세계는 달이 푸른색이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달을 봤던 날, 그 몽환적인 분위기에 넋을 놓은 채 한참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다.

아델의 머리카락과 눈동자 색은 꼭 밤하늘에 떠오른 달을 연상케 했다.

'뭔가 밤에 보면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성스럽고도 아름다운 외모를 얼마나 감상했을까. 언제부터인가 그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얼굴에 피가 몰리는 것을 느낀 나는 급히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괜스레 마차 안이 덥게 느껴졌다.

물론 흉터를 내보이지 않기 위해 입은, 온몸을 꽁꽁 싸매는 외출복도 한몫했다.

다시금 마차에는 침묵이 감돌았다.

나도 입을 열지 않았고 대공도 딱히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것이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날 배려하는 행동이라는 건 어렵잖게 눈치챌 수 있었다.

잠시 주저하던 나는 이내 용기내어 입을 열었다.

“...대공 각하.”

그가 이쪽을 돌아보았다.

마차에 올라타서 의례적인 감사를 전한 이후, 처음으로 시도한 대화였다.

물론 궁금증을 해소하려는 점도 있긴 했지만.

“진짜 제가 직원을 한 대 쳐서 기절시킨 거면 어쩌려고 그러신 건가요?”

아까부터 계속 마음 한편을 찌르던 의문점이었다.

아델은 왜 그런 것일까.

그의 행동은 너무나 위험했다.

그로서는 애초에 추문의 대상자인 나와는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그런데도 모습을 드러내고 내게 도움까지 주었다.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어찌 퍼질지는 안 봐도 뻔했다.

하지만 아델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빙긋 미소를 지은 그가 느른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았다.

“공녀님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이 흉악한 얼굴을 앞에 두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대공께선 관상가의 자질은 없는 것 같았다.

하여튼 정답이긴 했다.

그의 말대로 내가 누군가를 칠 성격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맞으면 맞았지.

현대사회는 싸울 때 일방적으로 처맞는 것이 유리한 법이다.

그런 불합리한 사회에 가장 적합하게 진화한 내 대응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물론 호구라 불리는 성격 탓도 있긴 했지만.

‘사실 그게 가장 크지’

아무래도 이 대공님은 내가 저택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동안 날 전부 파악한 듯싶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마차가 문득 멈춰섰다.

바퀴에 돌이라도 낀 건가 고민하던 와중, 아델이 내게 물어왔다.

“이대로 공작가로 데려 드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마차가 갈림길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셀리온 가의 저택, 오른쪽으로 가면 디아룬 대공의 저택.

집으로 돌아가긴 싫었다.

집에는 성난 오라비들과, 그 오라비들에게서 왜곡된 정보를 전해 받았을 뿔난 공작이 기다리고 있을 터.

그런데 그렇다고 이대로 안 돌아가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일 것 같고.

우물거리며 대답을 피하자, 내 심정을 대충 눈치챈 아델이 재빠르게 먼저 말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제 저택에서 차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만.”

움찔한 나는 슬쩍 아델의 눈치를 살폈다.

사실 아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내심 바라긴 했지만, 실제로 그리 말해주니 뭔가 마음에 걸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에 담기도 힘든 추문이 나돌던 사이지 않은가.

그런데 이렇게 자주 대공의 집에 드나드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내 망설임을 느낀 것인지, 아델은 한 마디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어서, 이 기회에 해결을 보고 싶군요.”

잠시 주저하던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승낙한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마부석으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연 그가 자신의 저택으로 갈 것을 지시했다.

마차는 이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마차는 금방 멈춰 섰다.

나는 아델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차에서 내려서 디아룬 저택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에는 비도 와서 그런지 칙칙해 보였는데, 밝은 와중 다시 보니 그보다 웅장할 수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조를 띠고 있는 벽면과 웅장한 정문. 그리고 음각으로 새겨진 푸른빛의 늑대.

웅장함에 압도된 나는 조심스레 아델의 뒤를 따라갔다.

디아룬 저택의 홀에는 외출을 다녀온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고용인들 모두가 모여 있었다.

뭔가 조금 떨리긴 했지만 내 앞에 시선 방패가 한 명 있어서 견딜만했다.

...아니. 시선 방패라고 하는 조금 너무한가.

“다녀오셨습니까, 각하.”

아델과 함께 저택에 들어서자 집사가 자연스럽게 그의 외투를 받아들었다.

집사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각하. 이분께서는...?”

“내가 초대해서 온 것이니 손님으로 대해. 그리고 차를 준비해주면 좋겠군.”

집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눈치였다. 하지만 다행히 더 캐묻지는 않았다.

집사가 사라지자, 고용인들 또한 각자 제 할 일을 하러 흩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여인이 한 명 있었다.

밀빛 머리카락의 고용인. 날 하룻밤 동안 돌봐줬던 데이지였다.

나는 데이지를 바라보며 순간 얼굴을 폈다.

‘오랜만이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랜만은 아닌가? 일주일 조금 더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반가운 건 매한가지였다.

데이지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자, 데이지 또한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였다.

반가워서 실실 웃음을 흘리자 아델이 무슨 일이냐는 듯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도리도리 저은 나는 후다닥 아델의 뒤를 따라갔다.

아델과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번에 봤던 응접실에 도착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 집사가 홍차를 담은 주전자와 간단한 다과를 내왔다.

아델의 손짓에 집사는 차분히 허리를 숙이고 다시 물러났다.

추궁 비슷한 걸 당하던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확연히 편안한 분위기였다.

호록.

마음이 편안한 와중에 따뜻한 홍차를 한 입 머금으니 그리 행복할 수가 없었다.

이번엔 각설탕도 눈치 보지 않고 넣을 수 있어서 더욱 그랬다.

'역시 달달한 게 최고야.'

겨우 각설탕 한 조각에 행복해하는 내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아델은 보일 듯 말 듯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부끄럽진 않았다.

비 맞은 개마냥 달달 떨면서 문 앞에서 기다린 적도 있고 아파서 골골대기도 했다.

이미 볼꼴 못볼 꼴 다 보였는데 이제 와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

단 걸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차는 입맛에 맞으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홀짝거렸다.

예법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그런 거 일일이 다 따지고 살다간 제 명에 못 살 것 같아서 포기한 지 오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델도 그런 것을 일일이 따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원작에선 여주인 이블린과 더불어, 자신에게 해를 끼친 이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무슨 일로 시내까지 외출을 나가신 겁니까? 지금은 아직 소문이 잦아들지 않은 시기일 텐데요.”

나는 그대로 차를 뿜을 뻔했다.

그래. 계속 순한 맛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속 편한 생각이긴 했다. 그런데 이렇게 훅 들어올 줄은 몰랐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은 나는 곰곰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실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맞는 대답이긴 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답답해서요. 바람이라도 쐴까 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아델은 넘어가지 않았다. 그저 부드럽고 고요한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볼 뿐.

나는 딴청을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나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 나이 먹고 가출한 게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괜히 속인답시고 거짓부렁 늘어봐야 들킬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지.

근데 과연 맞는 선택일까, 고민하던 나는 소심하게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들과 싸웠는데, 계속 집에 있기가 조금 답답했거든요.”

“싸웠다?”

“...싸웠다기보단, 혼났지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다시 엘리움 후작가로 돌아가래요.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전 아직 엘리움의 안주인이니, 처벌 권한 또한 엘리움 가문에게 있다면서.”

아델은 살짝 의아한 눈치였다. 이렇게 다 말해줄 줄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딱히 상관은 없었다. 아까 드레스샵 앞에서 날 구해줬으니 그 대가라 생각하지 뭐.

“그래서 제가 뭘 그리 잘못했냐고 따졌더니 왜 되려 적반하장이냐면서 엄청 혼났네요.”

와중에도 씁쓸한 자조가 절로 흘러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봐도 참 뻔뻔했다.

대체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 건지.

아무래도 며칠간 노아가 혼을 빼놓으며 괴롭혀대니 신경이 조금 날카로워진 모양이었다.

‘지금 돌아가면 안 그럴 텐데.’

이왕 책에 빙의도 한 거, 회귀 한 번만 시켜주면 안 되나. 흑역사 없애게.

물론 개소리였다.

“...”

아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여전히 심유한 눈빛이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홍차를 한 모금 마신 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동작 하나하나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품이 묻어나왔다.

예법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볼 때도 깔끔하게 보이니, 원.

넋을 놓은 채 그 자태를 감상하던 와중,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일깨웠다.

“그렇다면 셀리온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고개를 도리도리 내저었다.

물론 이대로 영원히 도망쳐버릴 생각은 아니었다. 아리아로 살아가겠다 결심한 이상, 도망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잠시 주저하던 나는 말을 덧붙였다.

“공작가로도 돌아가고, 엘리움 후작의 몸이 다 나으면 오라버니들 말대로 후작가로 돌아가야겠죠.”

“...”

아델은 입을 다물었다. 방금 한 모금을 제외하면 차를 들 생각도 없는 듯 보였다. 그의 찻잔에 담긴 홍차는 하염없이 식어만 갔다.

방안은 무거운 침묵이 가라앉았다. 나는 그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킬만한 유머 감각 따윈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저 홍차나 홀짝거리며 들이킬 뿐.

‘...습.’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현실을 마주해서 그런지 입맛도 별로 없어졌다.

각설탕을 더 넣어봐야 소용은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당이 떨어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기에 한숨을 내쉬며 각설탕으로 손을 가져가던 찰나였다.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혹시 대답해줄 수 있으십니까?”

나는 각설탕을 향해 뻗던 손을 회수하며 자세를 바로했다. 그의 분위기가 심상찮았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던 아델의 입이, 이윽고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왜 그러셨던 겁니까?”

아델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대충 짐작은 갔다. 이 타이밍과 이 분위기라면 하나밖에 없지.

하지만 나는 일부러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이상 대답하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더 묻지 말아 달라는 심정을 그라면 충분히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았다.

“어째서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하신 겁니까?”

물론 어림도 없었다.

나는 깊은 스트레스를 느끼며 각설탕 하나를 집어 통째로 입에 넣었다.

물론 아델도 그걸 물어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 것 같았다.

질문하면서도 계속 주저하는 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문을 거둘 생각은 없는 듯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아시는 게 전부예요. 전 대공 각하께 반했고, 분에 맞지 않는 욕심을 부렸지요.”

아델의 잔잔하던 눈빛은 어느새인가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뭔가 더 설명을 요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더 말할 건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은 악녀인 아리아가 원작의 주인공인 아델에게 반해서 남편을 죽이려 들었다는 것 하나였기 때문이다.

설령 더 자세한 사정이나 이유 따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설명할 요량도 재주도 없었다.

“...단지 그뿐이랍니다.”

게다가 난 거짓말을 못하는 단순하디 단순한 사람이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말하면 티가 나는 것이다.

사실상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방금 내가 한 것이 끝이었다.

“그렇군요.”

마침내 아델 또한 그걸 알아챘는지 착잡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그도 그 나름대로 어쩔 수 없었을 터다. 아무래도 자신과 관련된 소문이니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로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 생각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어도 씁쓸함이 얼굴에 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감정 조절에 그리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지만 그 씁쓸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제안하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고요한 아델의 목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들자, 날 바라보던 그가 빙그레 웃었다.

“만약 공녀께서 원한다면 셀리온로도, 엘리움으로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혼을 도와드리죠.”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인사를 하듯, 너무도 자연스럽고 여상히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허나 그것도 잠시. 이내,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깨달은 나는 자그맣게 입을 벌렸다.

'뭐라고요?'

셀리온 공녀가 자신의 남편인 엘리움 후작을 죽이려 든 이유가 디아룬 대공과 바람이 나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디아룬 대공의 주관으로 이혼까지 한다면 사교계는 그야말로 날뛸 터. 그도 모자라 정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사람은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 건가.

아니, 그보다도. 원작이랑 너무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대체 뭔 수작이지?

원래 원작에서는 오라비를 잃은 이블린느가 먼저 아델을 찾아왔다. 그리고 아리아에게 복수를 도와달라는 제의를 한다.

이블린느 자신은 오라비의 복수를 위해. 아델은 추문에 대한 불명예를 없애기 위해.

원작에선 아델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물론 여주가 그의 눈에 들어서였기도 했지만, 추문을 없앤다는 것 또한 나름 매력적이었을 터.

그런데 지금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어떻습니까?”

아델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날 바라보았다. 여전히 숨이 넘어갈 듯 아름다운 미소를 지은 채였다.

나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수작이고 뭐고, 저 얼굴을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얼굴을 무기로 쓰는 건 반칙이지.

한숨을 내쉰 나는 발개졌을 눈가를 가리며 중얼거리듯 목소리를 내었다.

“...왜, 갑자기 그런 제안을...”

그때, 갑작스레 문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아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돌아갔다. 이내 노크 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아델이 들어오라 하자 집사가 성큼 들어와 허리를 숙였다. 그 특유의 포커페이스가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가, 각하. 셀리온의 소공작이 정문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

아델이 눈썹을 찡그리며 되물었다. 입을 쩍 벌린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왜 생각하지 못한 걸까. 저택에서 타고 왔던 마차가 저택으로 돌아갔다. 그 시점에서 내가 어디로 갔는지는 다 들통났을 텐데.

왜 디아룬 대공가에 있다고 안심한 거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차 잘 마셨어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고 집무실을 뛰쳐나왔다.

아델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들을 시간이 없었다.

뭔 난리를 치기에 난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야.

어째 내가 아델과 엮이면 대공가에 좋은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온 나는 곧장 정문으로 향했다.

바깥에서 기다리던 데이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뒤를 따라왔다.

“고, 공녀님? 무슨 일이세요?”

설명할 틈도 없던 탓에 나는 눈길만 한 번 주고는 황급히 발을 놀렸다.

데이지는 당황하면서도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고용인들 몇몇을 지나치고, 어느새 익숙해진 대공가의 복도를 지나 문을 나섰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 페르가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그쪽으로 걸음을 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 한구석의 심란함이 점점 크기를 불려갔다.

위병 여럿이 달라붙어 간신히 페르를 막고 있었다.

위병들을 담당하는 기사는 검이라도 뽑을 듯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고 있었다.

그간 얼핏얼핏 봐온 페르의 성격은 이미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다.

감정적인 공작이나 노아와는 달리, 냉정하고 사리의 분별이 명확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 인상적이었기에 그나마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화났나?’

꼭 야차가 현신한 것 같았다.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 근처에서 아지랑이가 올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의 위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질린 기색을 숨기려 노력하며, 조금씩 페르에게 다가갔다.

“오라버니...”

자그맣게 페르를 부르자 그가 번뜩 고개를 돌렸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를 막고 있던 위병들이 그제야 숨을 돌렸다.

나를 확인한 페르의 야차같던 얼굴이 그제야 조금 풀렸다. 하지만 무서운 건 여전했다.

“아리아.”

화를 꽉꽉 눌러 담는 듯한 그 목소리에 나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입술을 얼마나 짓씹은 건지, 입가에 진한 잇자국이 남아있었다.

페르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이내 포기한 듯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손을 뻗었다.

“이리와.”

“페르 오라버니...”

그런데 뭔가 이대로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았다. 진짜 이러다가 몸에 흉터 몇 개 더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주춤거리는 것을 느꼈는지, 페르의 인상이 더욱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위병들이 움찔하며 나와 페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리와. 당장.”

위병들의 눈에는 짙은 애원이 담겨 있었다. 무엇을 애원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질척대지 말고 빨리 꺼져달란 뜻이겠지.

‘에휴...’

결국 나는 페르를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다. 이렇게 된 이상, 몸에 흉터 몇 줄 더 생길 각오는 해야 할 듯싶었다.

하지만 그때.

“가시는 겁니까?”

뒤에서 여유롭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델이 팔짱을 낀 채 이쪽을 보고 있었다.

페르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길을 아델 쪽으로 휙 돌렸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안 쓰인다는 듯, 그저 나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나는 페르의 눈치를 슬근슬근 보며 대답했다. 그러자 권태감이 깃든 그의 푸른빛 눈동자가 나긋하게 휘어졌다.

이 상황에서도 잘생겨 보일 수가 있다니. 반칙 아닌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낀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다.

페르와 정통으로 눈이 마주친 것이다.

“...아리아.”

안 그래도 빡쳐 있던 그의 목소리에 조금씩 분노가 깃들기 시작했다.

페르가 이쪽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자, 그를 막고 있던 위병들이 와장창 쓰러졌다.

위병들은 황급히 다시 일어나 페르를 막으려 했지만, 중과부적이었다.

페르가 굳게 닫힌 철문의 창살을 잡자 치이익-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녹아내렸다.

쇳물이 뚝뚝 흘러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며 물러섰다.

“나와, 당장. 내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 맨손으로 철을 녹여? 저게 사람이야?

결국 나는 나도 모르게 이 집의 주인을 돌아보았다.

저기, 우리 집 아이가 댁 집 훼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델은 여전히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저 고요하고 느른한 눈빛으로 날 바라볼 뿐, 별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

와중에 정문을 녹여버리고 이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페르가 내 앞에 섰다.

키 차이 때문에 올려보던 나는, 그가 손을 이쪽으로 내밀자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때였다.

덥석.

고민을 끝낸 듯, 어느새 이쪽으로 다가온 대공이 내게로 향하던 페르의 손목을 붙잡았다.

치이익- 하는 소리가 대공의 손바닥과 페르의 손목이 맞닿은 부분에서 새어 나왔다.

다짜고짜 방해를 받은 페르가 아델에게 그 무시무시한 시선을 돌렸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내 손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델이, 여유롭고 느근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폭풍전야와도 같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페르의 눈이 이글이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비유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불타올랐다. 꼭 빛나는 태양이 눈에 박힌 듯했다.

페르가 강하게 팔을 털며 잡힌 손목을 떨궈냈다.

“손님? 지금 다른 가문의 영애를 멋대로 집에 데려와놓고, 초대했다고 우기라도 할 셈입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다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밖에 없군요.”

페르는 더 말을 않겠다는 듯 눈을 부라리며 주먹을 움켜쥐었다.

이윽고, 그 손에서 불꽃이 화르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이 불타올라 잿더미로 변하는 그의 옷소매가 그 불꽃이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나는 휘둥그레 눈을 뜨며 페르를 바라보았다.

'뭐야. 기인열전이야?'

하지만 감탄할 새도 없었다. 페르가 그대로 아델을 향해 달려든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둘 사이를 가로막았다.

순간 페르가 눈을 크게 뜨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미 가속이 붙은 페르의 손은 멈출 수 없어 보였다.

곧 들이닥칠 둔통에 대비하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멀쩡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기절해버린 건가 싶었지만 딱히 그런 느낌도 아니었다.

‘뭐지...?’

슬쩍 눈을 뜨며 흘끔 확인하자, 어느새 나는 아델에게 끌어안겨 있었다. 그리고 아델의 손에 굳게 붙잡혀 있는 페르의 주먹.

활활 타오르던 불길은 어느새 김을 내며 꺼진 상태였다.

아델이 페르의 손을 뿌리치며 나를 살폈다. 그리고는 안도인지 답답함인지 모를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내저었다.

“겁도 없으시군요.”

“아, 아리아...”

페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아델은 여전히 그를 개의치 않았다. 그저 푸르른 눈을 빛내며 나를 내려다볼 뿐.

사르르 휘며 곱게 접어진 그의 눈가가 고요한 이채를 발했다.

“그래서, 대답할 생각은 드셨습니까?”

하지만 나는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아델의 품에서 빠져나왔다.

사실 그 제안을 들었을 때부터 답은 곧바로 결정하긴 했다.

다만 그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여서 고민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왕 상황이 이렇게 개판이 난 거, 대놓고 말해도 별 상관없을 듯싶었다.

“...거절할게요.”

아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날 붙잡지 않고 순순히 놓아준 그가, 두어 발자국 떨어진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죗값을 치러야 해서요.”

아델이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대답을 들을 줄은 몰랐다는 눈치였다.

페르 또한 멍한 눈초리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실 원작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지만, 딱히 할 만한 대답이 없었다.

와중에 노아가 한 말이 떠올라서 그리 대답했는데, 뭔가 말하고 보니 오글거리네.

하여튼 거짓말은 아니잖아.

“...가요, 페르 오라버니.”

나는 오그라드는 손가락을 달래며 황급히 페르를 이끌었다.

통째로 녹아버린 정문을 빠져나온 나는 마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대공을 돌아보았다.

아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선 채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숙이니, 잠시 머뭇거리던 아델 또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목례를 했다.

탁-

마차의 문이 닫혔다.

셀리온 공작가의 마차는 그대로 공작가를 향해 출발했다. 공녀 또한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정문에 혼자 남겨진 아델은 방금 상황을 곱씹으며 중얼거렸다.

“미치겠군.”

주변에는 사태를 살피러 나온 위병들과 고용인들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체면치레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다. 이렇게 찬밥 신세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리무중인 상황은 난생 처음이었다.

"후우."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라는 것이 존재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공녀와 관련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꼬여버렸다.

원인은 짙은 안개 속에 끼인 듯 흐릿해지고, 결과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 나왔다.

요컨대, 명백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살피던 집사가 헐레벌떡 달려오며 그의 안위를 살폈다.

“각하! 괜찮으십니까?”

“날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델은 집사를 신경도 쓰지 않고 중얼거렸다.

그는 공녀를 시험하기 위해 작정하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여인을 유혹하려 들다니.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이었다.

단언컨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웃은 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하지만 들였던 노력에 비해, 알 수 있던 것은 미미했다.

"왜지."

공녀는 자신이 웃을 때마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시선을 피했다.

마차에서는 아예 넋을 놓은 채 대놓고 바라보다가 자신에게 들키고는 부끄러워했다.

그걸 보면 제게 관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기엔 또 엘리움 후작을 찌를 만큼은 아닌 것 같고.’

겨우 남자 따위에 눈이 멀어 그런 우둔한 선택을 할 여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그녀의 선택이 증명했다.

개차반 망나니.

진정으로 그 소문이 맞다면 방금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을 테니.

잠시 잡념을 이어나가던 아델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모르겠군.”

이렇게 알쏭달쏭한 여인은 처음이었다.

개차반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그보다 더 무구하고 순진한 사람이 없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엉뚱한 누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는데, 반박 한마디도 못 하고 얼굴이 새하얘지지 않았던가.

그것도 모자라 그 누명을 뒤집어씌우려 했던 마담에게도 별말 않고 넘어갔다.

귀족들 특유의 한없이 높은 자존심을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드레스샵의 주인이라고 해도 기껏해야 백작가의 안주인.

셀리온 공작가와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재나 처벌 없이 넘어간 것이다.

“악녀 망나니라고?”

겨우 각설탕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겨우 하룻밤 시중을 들어준 하녀한테 정드는 것도 모자라서, 가족한테 혼났다고 침울해지는 사람이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망나니라니.

세상에 망나니 다 죽었지.

현 남편을 죽이려 들면서까지 보려 했던 남자가 앞에 있는데 그녀는 다과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볼 때는 매번 눈을 피하면서, 겨우 각설탕 하나에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기억하면 헛웃음밖에 안 나왔다.

‘내가 겨우 각설탕에 졌다고.’

아델은 피식 웃음을 흘렸다. 이성 따위에 신경을 쓴 적도 없지만, 이렇게 되니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았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묘한 감정의 여운을 느끼던 아델은 느른하게 중얼거렸다.

“정말 그녀가 패악질을 부리는 망나니라면, 뜻대로 놀아난 꼴이군.”

집사가 제 주인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혹시나 그의 기분이 나빠진 것은 아닌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델은 정말 괜찮았다.

설사 진짜 자신이 놀아난 것이라 해도, 어쨌든 흥미를 끈 것은 사실이었으니.

묘한 감정의 여운을 느끼던 아델은 이내 몸을 돌려 저택으로 들어갔다.